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 상 식

2020.11.27



주영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K



주영한국교육원
KOREAN EDUCATION CENTRE UK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개 회

주영한국교육원장 김 수 경





애국가

1절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대회 경과 보고

주영한국교육원장 김수경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격려사

주영국대한민국대사 박은하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심 사 평

심사위원 윤태영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장원 작품 낭독

유년부 강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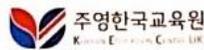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2년 단 한글학교	부 문	유년 초등·중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3학 년	한글 이름	강은재
외국 거주기간	총 4년 3개월	선택 주제	인터넷 세상
제 목	인터넷 세상은 좋지만...		

○ ○

인터넷 세상은 컴퓨터가 소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구글, 유튜브, 줌, 줌, 트위터 등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앱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앱 중에서 줌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줌을 사용했을 때에는 학교가 폐쇄되어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 불행한 일의 시작은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고, 우리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마침내 줌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줌은 컴퓨터의 카메라를 통해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컴퓨터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평범한 모습을 새롭고 흥미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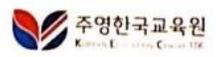
(3)면 중 (1)면



(2면 이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코스트코를 입고 코스트코와 어울리는 배경을 줌에 설정했더니 마치 제가 만화 주인공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줌은 학교 수업할 때도, 아버지가 일하실 때도,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화상 전화 등을 할 때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은 줌에서 많은 아이들이 아주 큰 소리로 떠들 때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한 번의 클릭으로 음소거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했는데 말이죠. 줌을 통해 선생님은 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며, 목이 아프실 일도 없습니다. 저는 줌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선생님이 호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주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마치 실제 옆에 계신 것과 같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호로그램으로도 실제 선생님과과는 다르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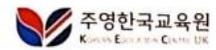
(3)면 중 (2)면



(2면 이하)

그리고 저는 컴퓨터에서 친구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하면 컴퓨터상에서는 친구와 직접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친구와 장난도 못 치며, 운동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인터넷 세상은 더욱더 진보된 것이고 어찌면 우리는 더 집을 떠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즉 만나고 싶은 사람은 줌을 통해 만나고, 먹을 것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하고, 옷부터 이것을 배달해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고, 여러 나라에 가서 여행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세상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약간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면 중 (3)면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장원 작품 낭독

초등부 김주안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북동부 한글학교	부 문	유년·초등·중등·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4 학 년	한글 이름	김주안
외국 거주기간	총 7년 1개월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코로나와 전쟁		
○ ○			
<p>안녕, 내 이름은 김치국이야. 나는 원래 평범한 13살 재외동포였어. 컴퓨터 게임을 3시간동안 놀다가 혼내고, 숙제를 밤 12시까지 미루고, 잠을 7시간만 잤어. 내 인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사실은 기분이 정말 좋았어. 왜냐하면 학교도 안 가고 하루종일 뒹굴뒹굴 침대에 누울수도 있었거든.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했어. '괜찮아, 아무도 안 걸렸을 거야.' 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하지만 왜지 원래보다 더 자신감없이 말씀하셨고 다 같이 검사하러 갔지. 1주일 뒤에, 결과는 충격이었어. 내 아버지와 나는 괜찮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심각한 상태인걸 알게됐어. 빨리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 얼굴 방패와 호흡기를 입은 사람이 우리 집을 소독하러 왔어.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내가 심하게 울었어.</p>			

(4)면 중 (1)면

(2면 이하)

우리 어머니는 만날 건강해서 감기만 드물게 걸리셨는데,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린적이 없어서 정말 무서웠지. 너무큰 충격이라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리고 몇일 뒤에는 더 심하게 울어야 할 일이 생겼어.

2020년 10월 11일
이 소자들이 너에게 별 뜻이 없겠지만, 이 소자는 나한테 정말 슬프고 괴로운 날이었어. 이 날 내 어머니가 지구를 떠나 천국에 갔던 날이야. 이 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나는 너무 많이 울어서 물을 마시러 가야했어.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면서 결심을 했어. 나는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백신 만드는 일을 위해 살 것이라고... 모든 병의 백신을 만들면 내 자손들이 내가 받았던 아픔을 안 느끼고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단호한 얼굴로 백신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

(4)면 중 (2)면

- 12년 뒤 -

12년 동안 나는 의학 연구를 했어. 매일 7시간
을 실험실에서 일했지. 힘들었지만 일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무찌를수 있을것
같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 5년 뒤 -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고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어. 새로운 Covid-37이 3개월 만에 500,000
명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했어.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이 무시 무시한 바이러스의 백신을
찾고 있었어. 그리고 거의 다 만들었어. 그냥 이
병의 세포를 환자에게서 배내기만 하면
되었어. 하지만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나도
걸릴 확률이 높았어. 그리고 병에 걸리면 곧바로
죽었어. 한 숨을 쉬면서 Covid-37 테스트
를 또 했어. 그리고 나의 조수들은 안

(4)면 중 (3)면

걸렸지만 내가 했을때 갑자기 화면에
POSITIVE 라고 쓰여있었어. 내 심장이
두려움에 뱅뱅이 뛰기 시작했어. 내 모든 인생이
이 사소한 병 때문에 끝이 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연구를 한게 다 쓸모가
없어질까? 나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인가?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주사기를 내
팔에 꽂고 피를 조금 뽑아 냈어. 그리고 내
조수들 한테 말했어, "이 피 안에 바이러스
세포를 죽여서 백신 안에 넣어!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끈장날거야!" 나의 조수들이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 백신은 만들겠지만,
나는 벌써 병에 걸려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약하게 속삭였어,
"안녕... 어머니. 그동안 보고싶었어요. 이제 곧
만나요."

(4)면 중 (4)면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장원 작품 낭독

중등부 허지원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런던 한글학교	부 문	유년·초등· <u>중등</u> ·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3 학 년	한글 이름	허지원
외국 거주기간	총 15년 3개월 <small>연3월씩</small>	선택 주제	코로나
제 목	자정 (子正)이 정오 (正午)		
◎ ◎			
코로나 (COVID)란 이름의 국자로 삼월이 시월로 혼합된다 일초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데, 뒤를 돌아보니 이미 몇달을 산속 깊이 걸어왔네. 인터넷으로는 하루하루 바쁜 손으로 달려왔건만, 생활은 왜 껌처럼 길에 달라붙어 무자비하게 행진하는 시간의 발걸음 밑에 밟혀 지나가는 걸까 내 방 속 바람은 숲소리의 메아리뿐 가끔씩은 침묵이 무거워져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려 하지만, 매시간 컴퓨터를 키고, 또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일을 해야하니 그런 현실도피도 어렵네 시계를 보면, 밤 열두시는 낮 열두시랑 다름이 없다. 꼭 나는 그 시계의 궤도 속에 갇혀,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세끼로만 장식된 하루하루는 그를 꾸미는 추억이 없으니 형체없이 녹아간다			

()면 중 (1)면

(2면 이하)

글씨없는 달력은 또한 광명이며, 마치 장식물 없는 케익같다.	
뜨거운 여름은 가을속에 불타는 새빨간 단풍잎이랑 같다. 계절이 지나가며 변화하는 것은 낮이 짧아지며 세상이 더 캄캄해지는 것 밖에	
코로나는 이미 우리와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지만 나는 흥성스러운 그를 바라보며 그와 작별할 시간만을 바라보고 있다.	
[클러 종류 시]	

()면 중 ()면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장원 작품 낭독

다문화부 자스민 크라우치

제29회 재영 한글학교 연합 글쓰기 대회 원고

소속 한글학교	런던 한글학교	부 문	유년·초등·중등 다문화
한글학교 학년	중 2 학 년	한글 이름	크라우치 자스민
외국 거주기간	총 6 년 3 개월	선택 주제	추억
제 목	늦은 깨달음		
◎ ◎			
<p>나는 매일마다 조금씩 우울해진다. 다시 살아보고 싶은 시기가 있는데, 현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약 7년 동안 늦이기다 같은 삶을 살았는데 모르는 사이 추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다. 아직도 기억나는 추억의 장소들 - 아파트 뒤에 있던 산, 곳곳에 있던 녹이더, 없는게 없는 시장, 학원으로 가던 길, 아파트 밑에 있던 미용실, 주차장, 사진관, 작은 민식당, 간단한 거너면 있던 보습 선생님, 횡단보도 두꺼를 건너서 가던 친구의 집, 이 외에 너무나도 많은 장소가 있었고, 각곳이 재밌고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이 생생해서 그때의 감정까지 기억이냐며, 다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장이를 정도로 길다.</p>			
<p>하지만, 얘기를 안할수 없는 추억의 장소는 동네 시장이다. 이 시장은 365일 매일 갔었다. - 어쩔 때는 가족과, 아님 친구들과, 가끔은 나 혼자간적이 있었다. 우리 가족을 좋아해주시던 한 김밥 아줌마, 시장가서 뽕얼음 때 가끔가다 돌리는데, 서비스 해주실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사하시던 떡볶이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잠을 다하고 집에 가기전, 자주 들렸던 곳이었다. 또, 당시엔 새로 들어왔던 음식점이 있었는데, 학원을 끝내고 뽕돌을 들고 갔었다. 이 음식점은 핫도그를 팔았는데, 저렴한 가격과 맛있는 음식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 잡으며, 인기가 많았다. 이게 끝이</p>			

(2)면 중 (1)면

<p>아니었다. 시장 시작엔 학생들이 많이 찾았던 물구멍이 있었다. 나도 자주가서 뽕 많이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대부분 쓸데 없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는데, 다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p>
<p>하지만 현재 나의 운세가 이것이다; 머리속에서 더되고 있는 옛 이야기의 감정이 깊어서 현실을 깨달때 아쉬움이 매우 커진다. 지금 살고있는 이곳, 영국과 인생의 반을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곳, 한국의 차이가 커서 현재 영국살의 만족을 못느끼고 있다. 물론 각 나라의 장단점이 있지만, 두나라의 내 시선은 한국의 장점이 더 많다. 그래서인지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은 부모님 보내보면서, 가족과 함께 마트코 가 장을 보면서, 차에 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태블릿 나오는데 방송을 보면서 고전전에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난다. 요즘들어 친구들에게 자주하는 말 "한국어번 어려운데", "와, 한국은 이게 있는데" 또는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니 심지어 내 친구들도 부러워하며 한번 같이 가자고 한다.</p>
<p>7년 동안 생각없이 오았던 소중한 사건과 추억들이 내가 겪어 살고 있었던 곳이 멀어보소중했는지 알게된다. 지금은 어쩔수 없이 한국에 가서 살수는 없지만, 언젠가 꼭 소원을 이루고 싶다.</p>

(2)면 중 (2)면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수상자 발표 및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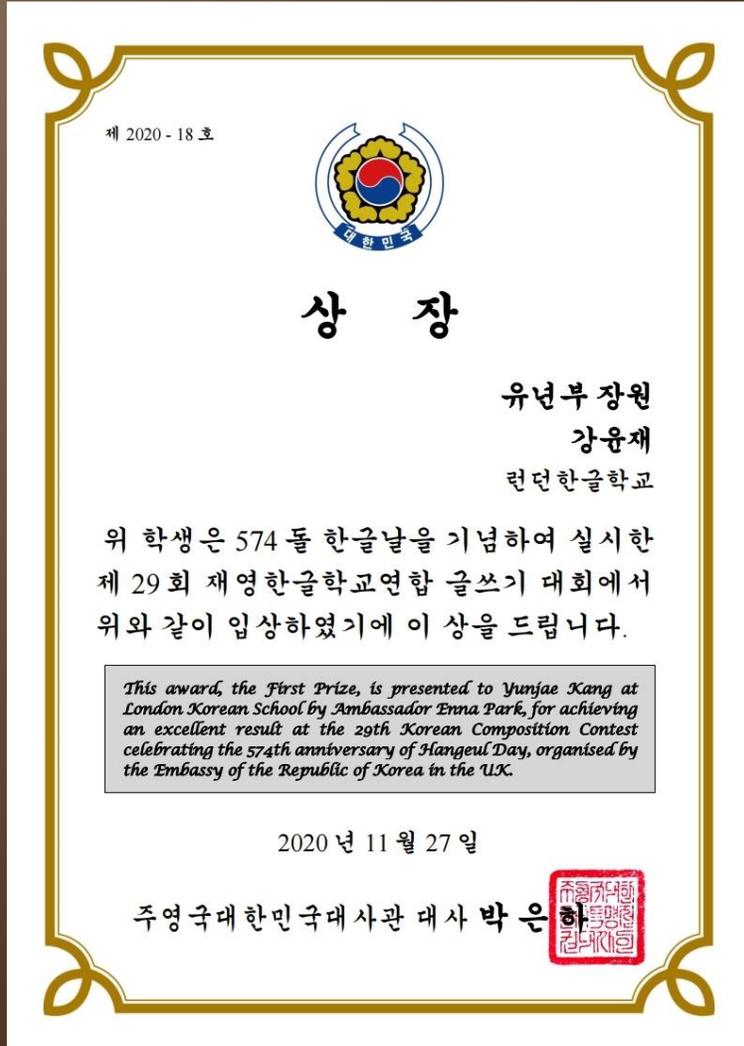


장 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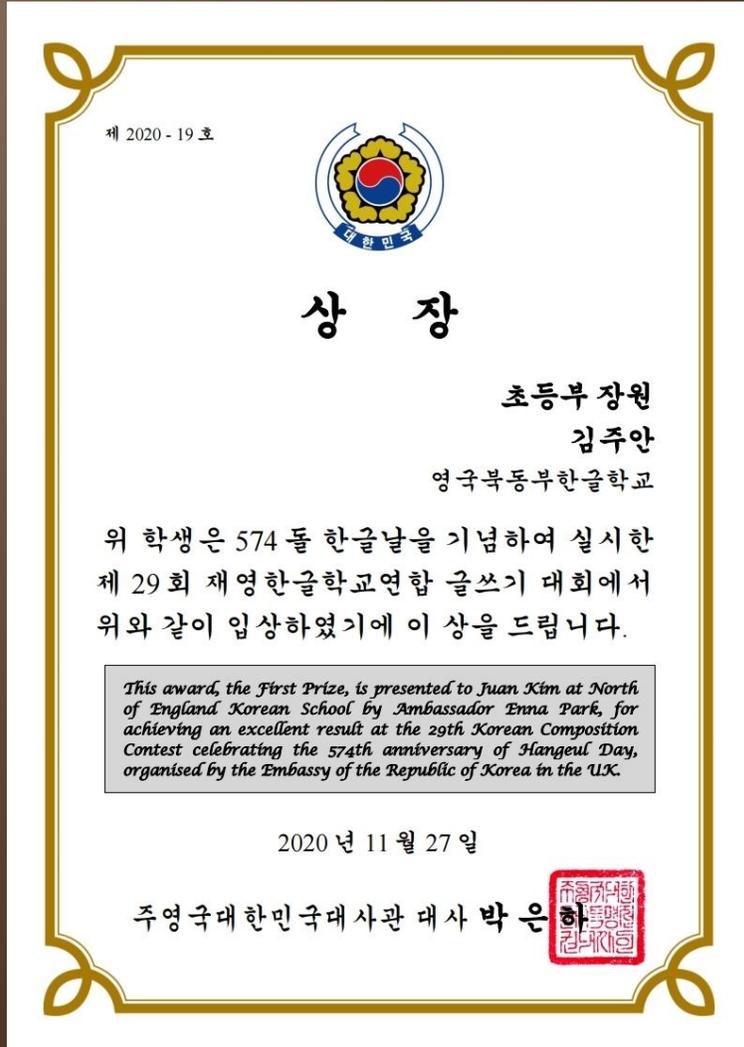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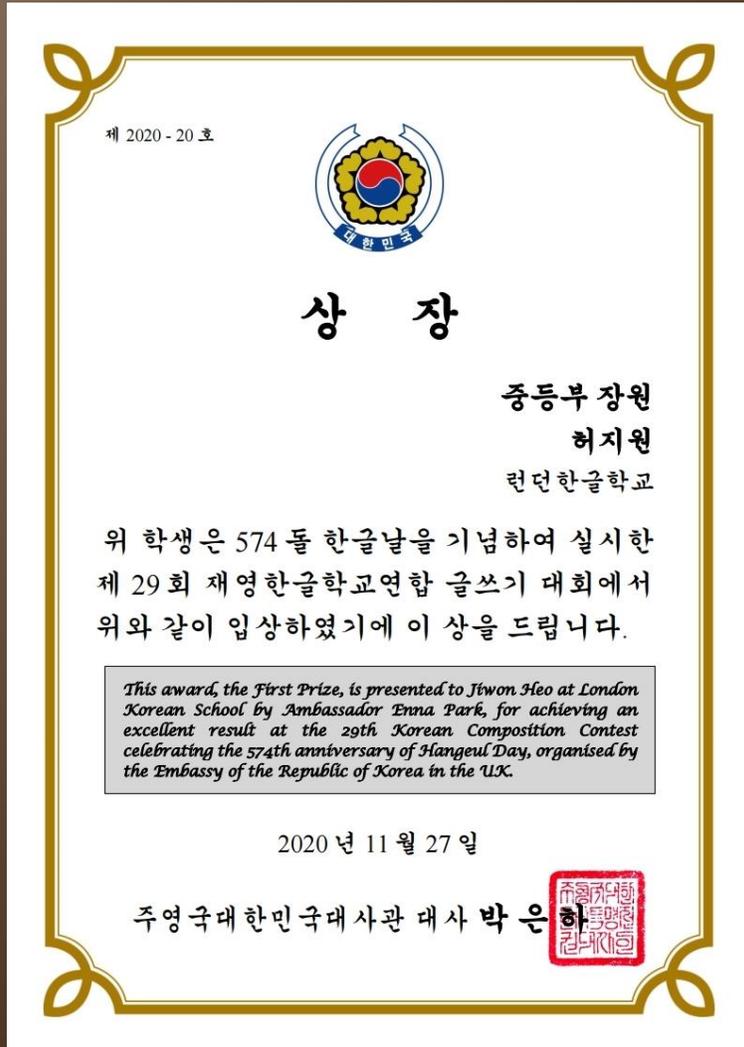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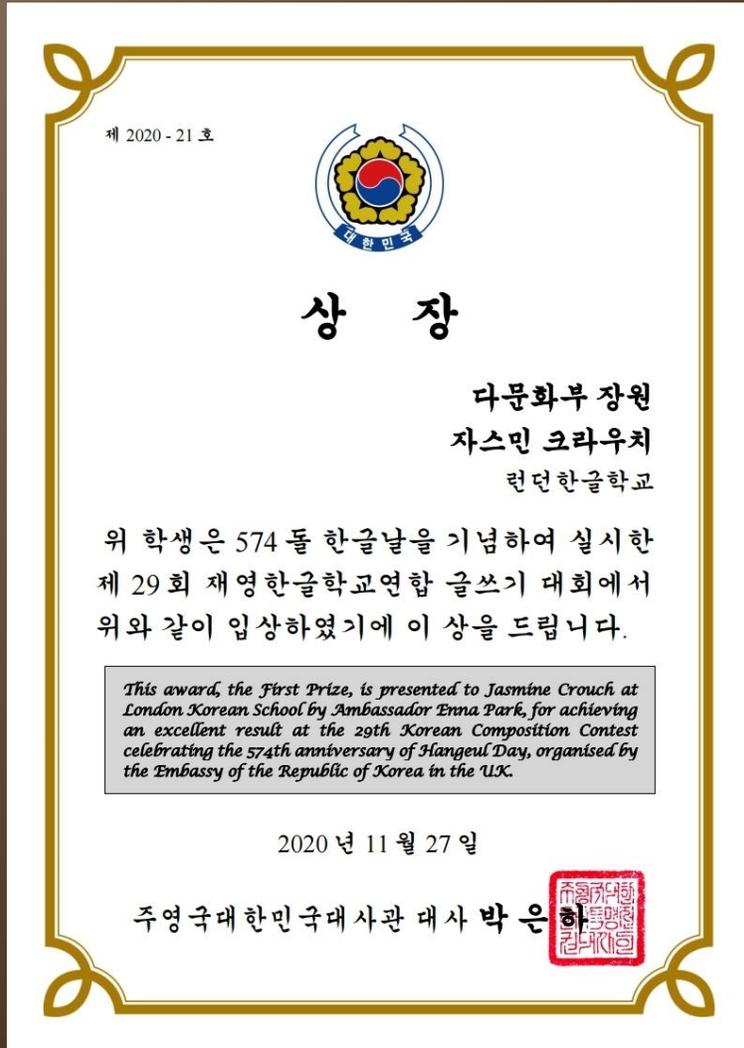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장 원



박은하 대사



주영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K



주영한국교육원
KOREAN EDUCATION CENTRE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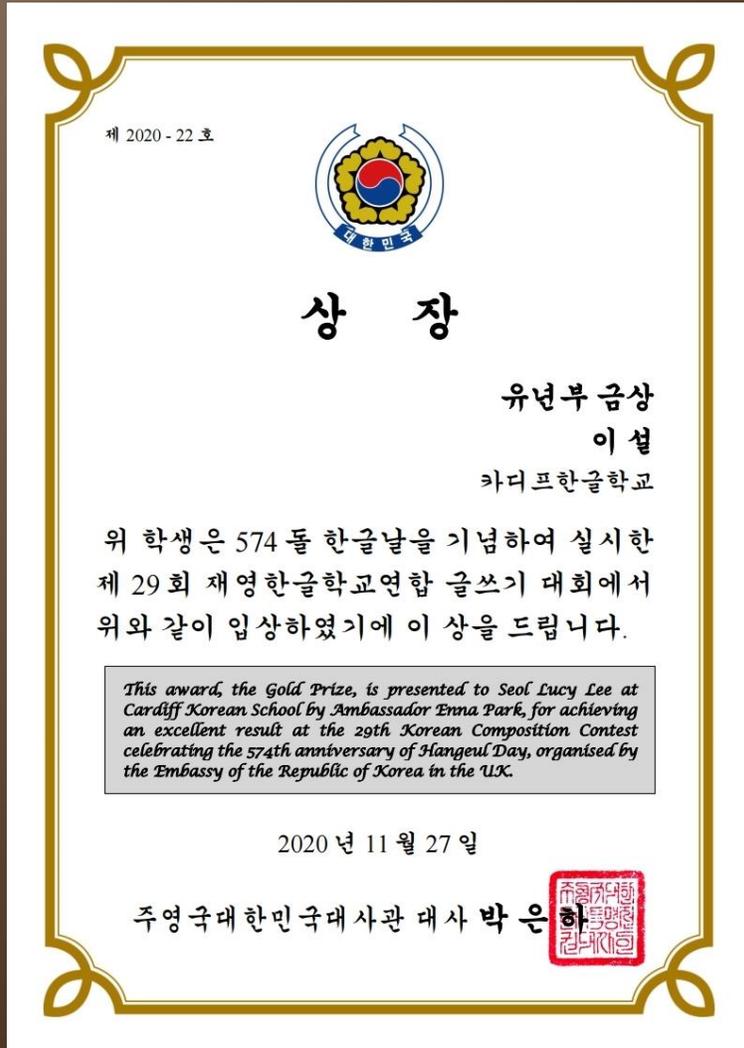


금 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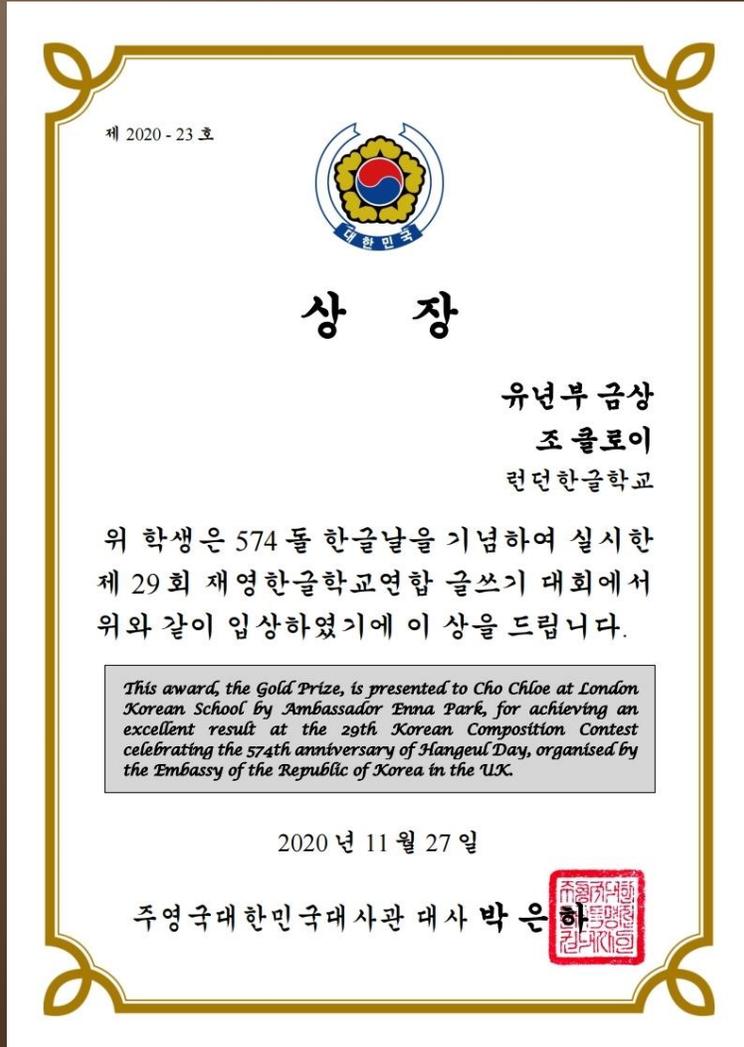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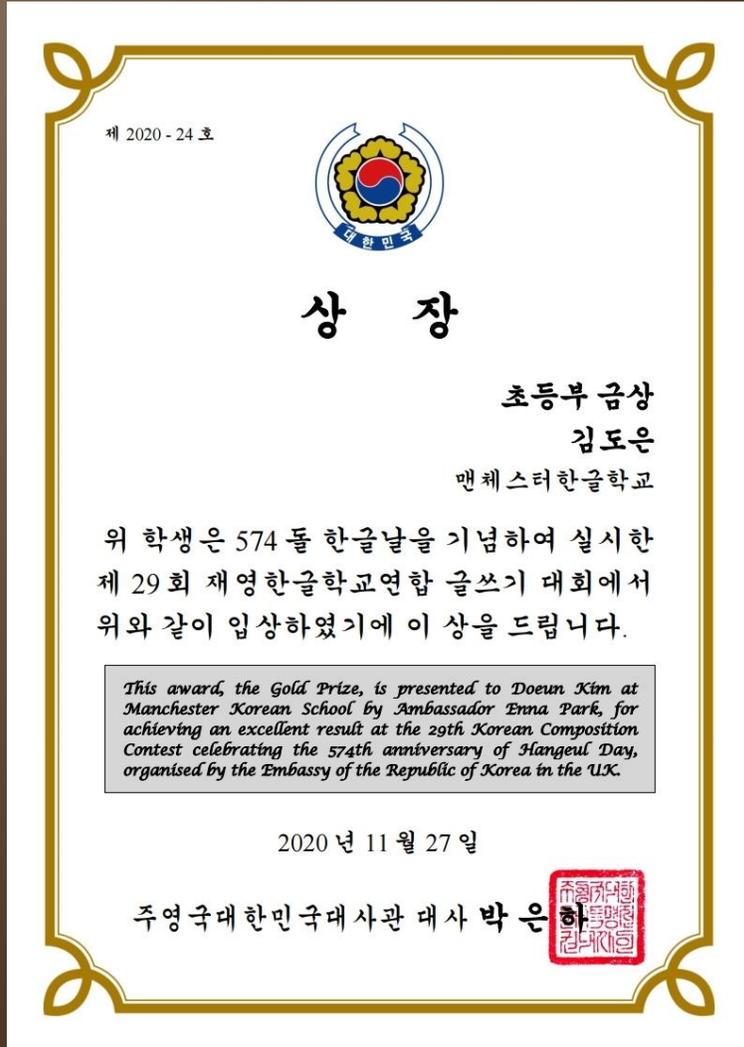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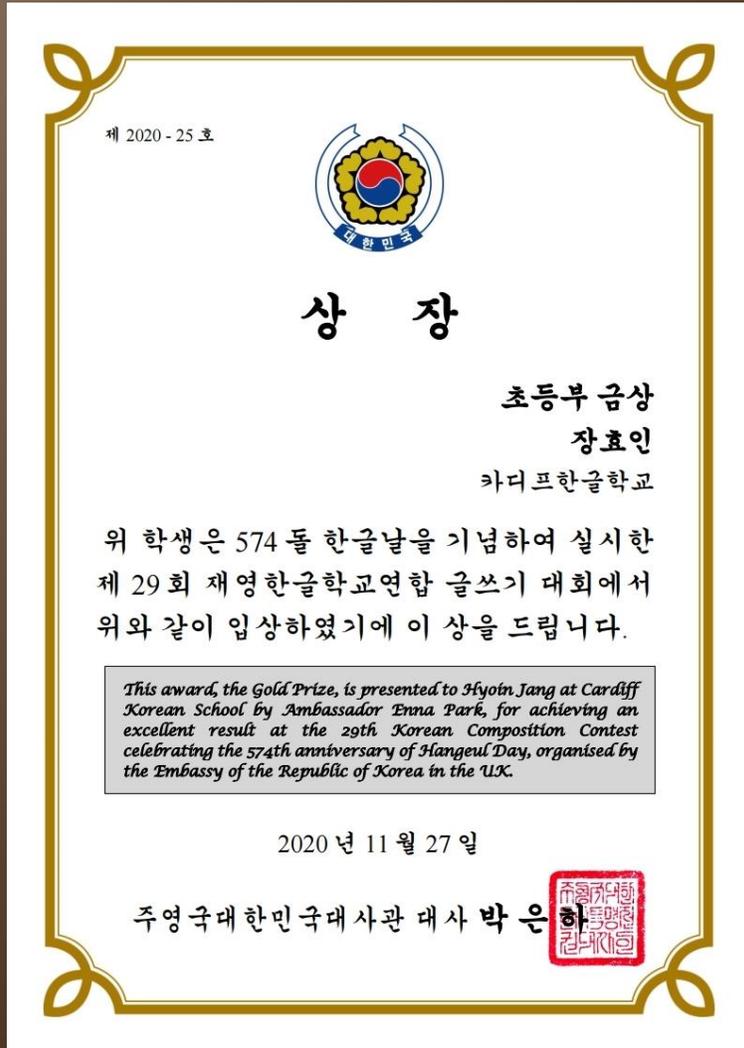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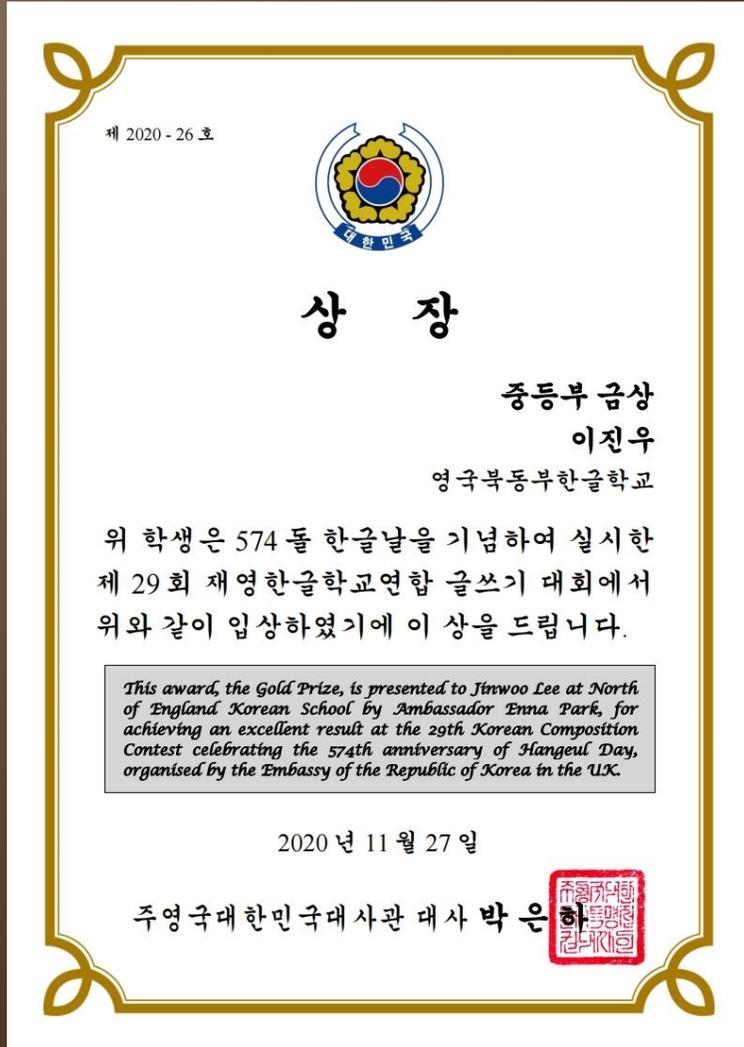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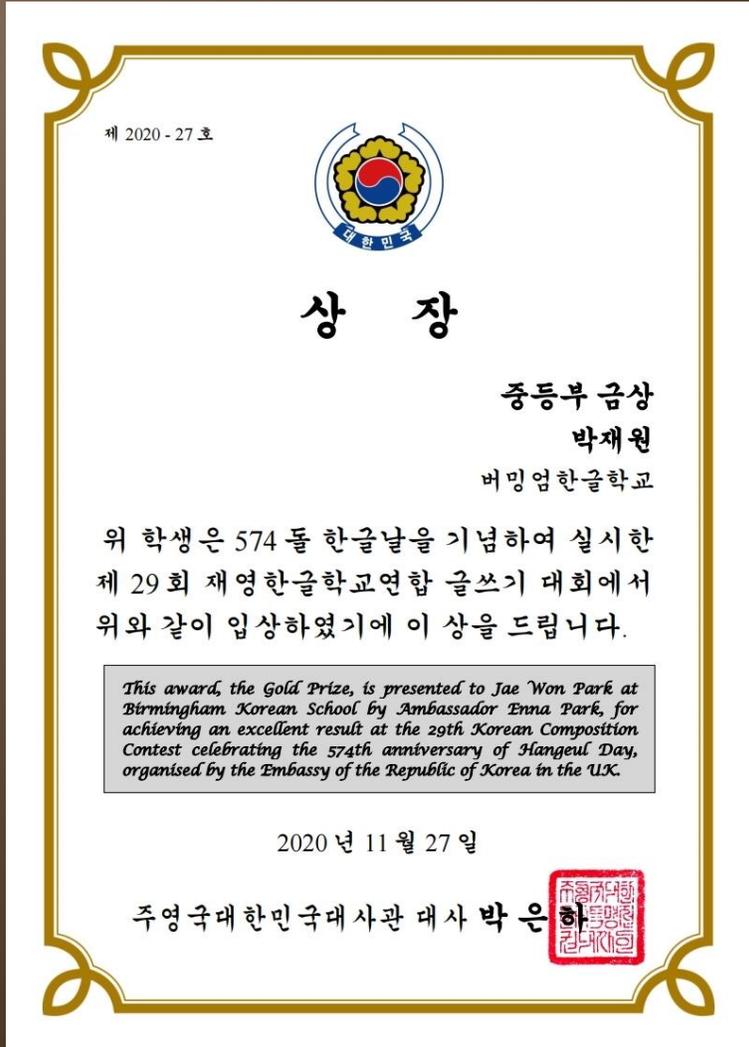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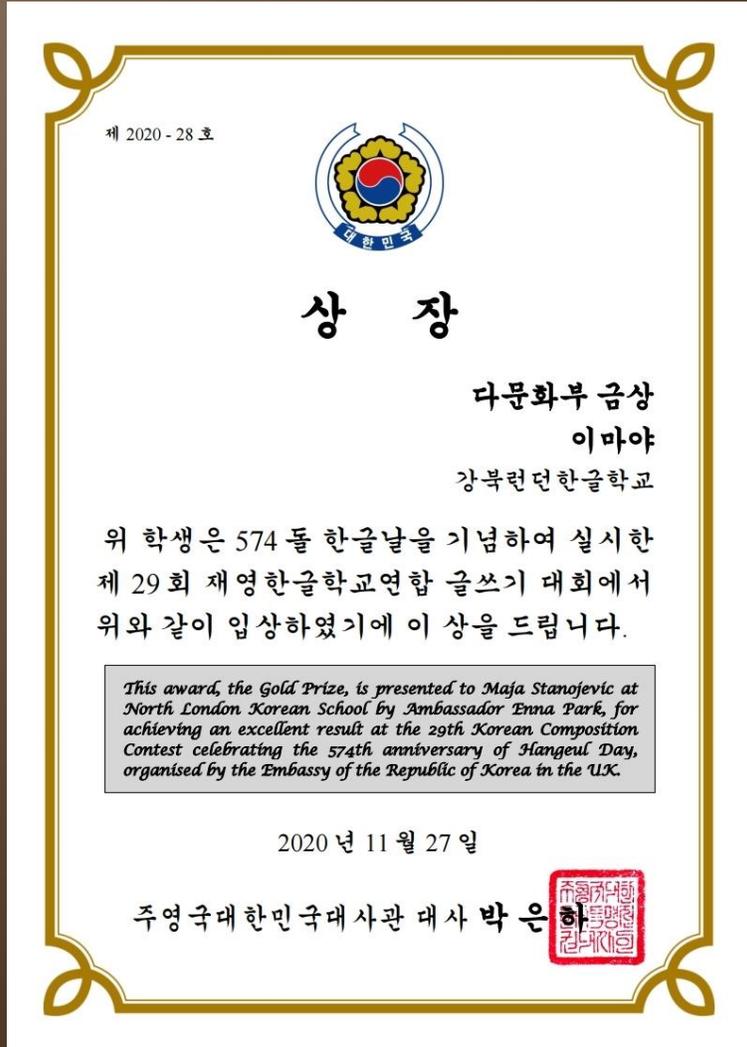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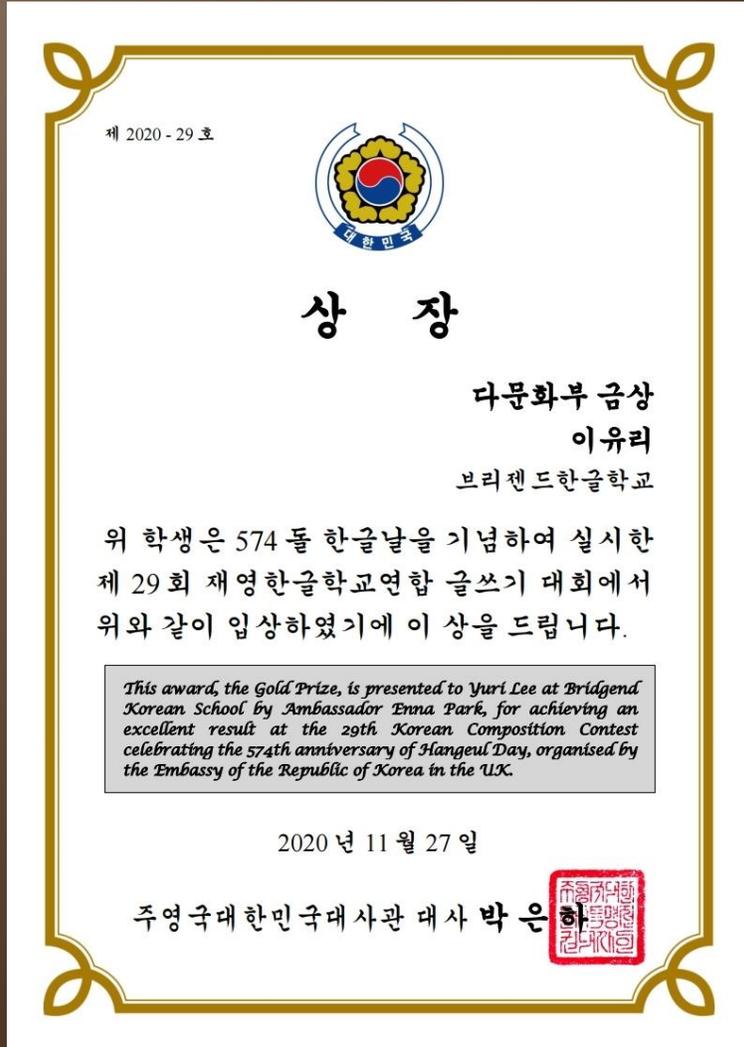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금 상



박은하 대사



주영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K



주영한국교육원
KOREAN EDUCATION CENTRE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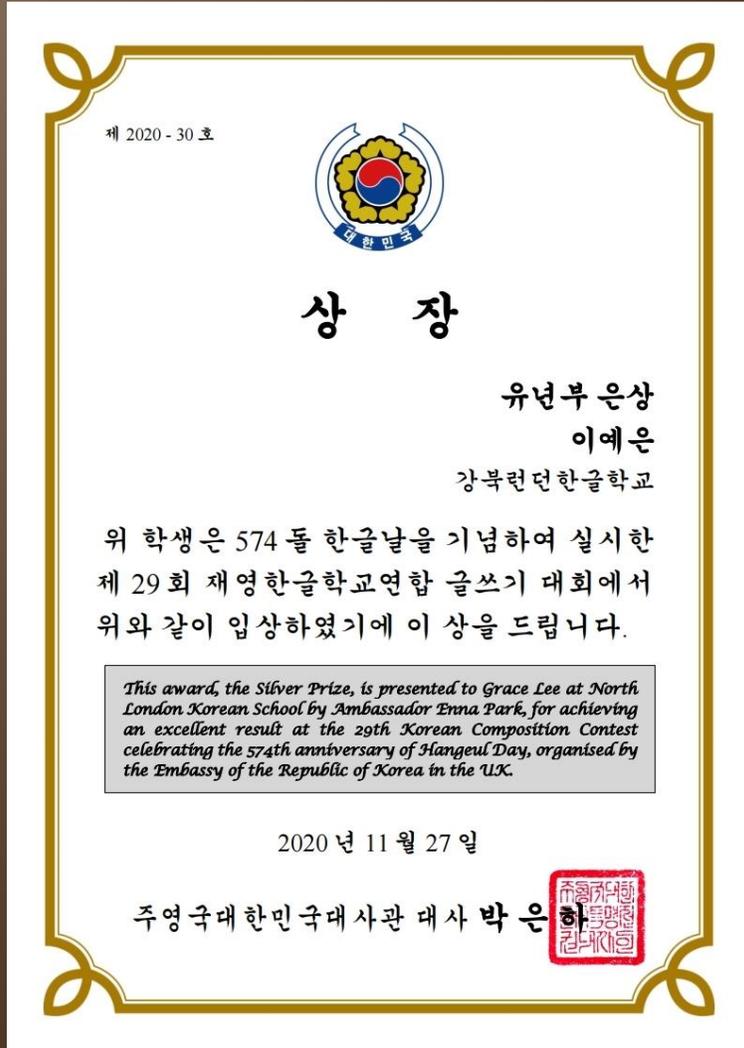
은 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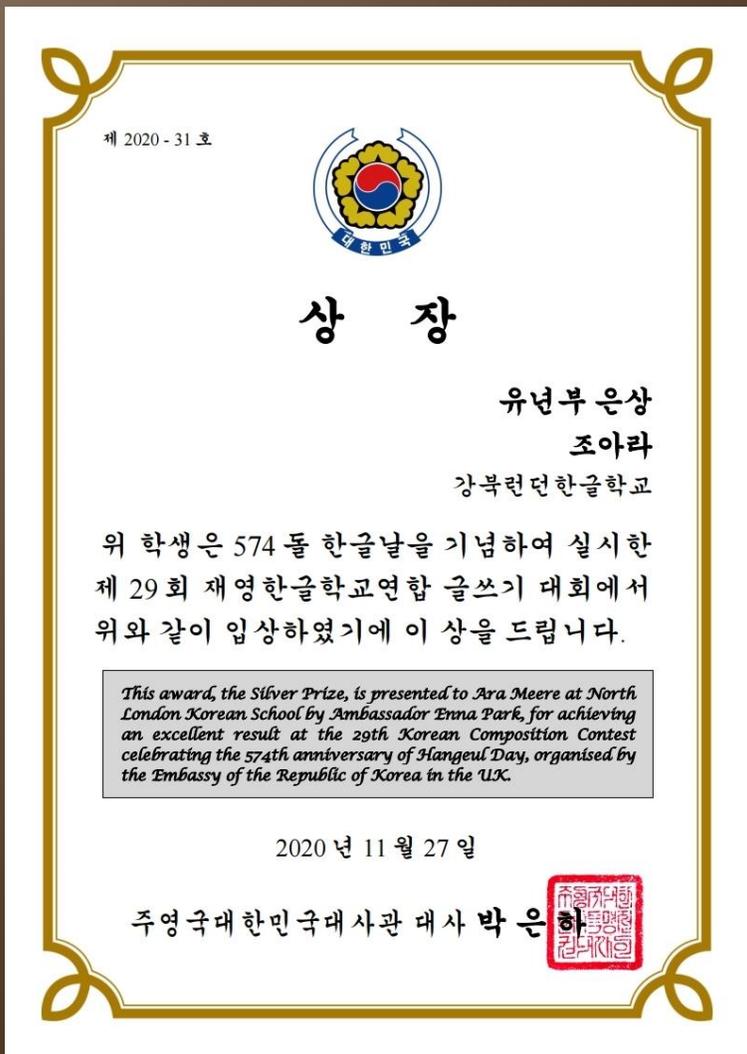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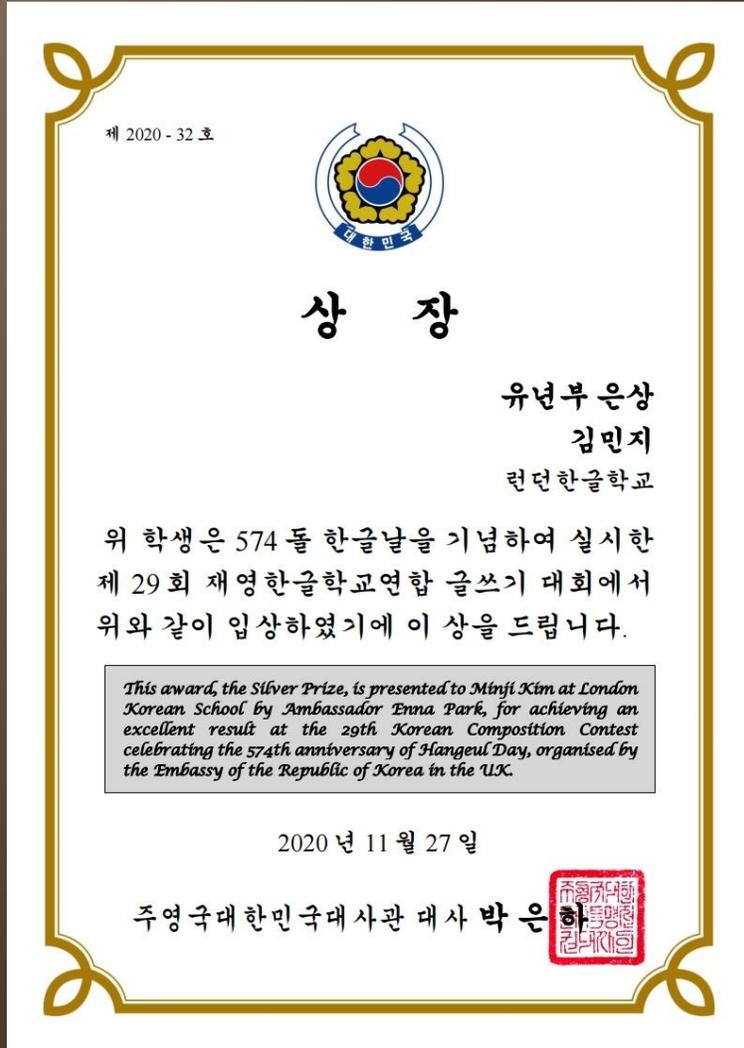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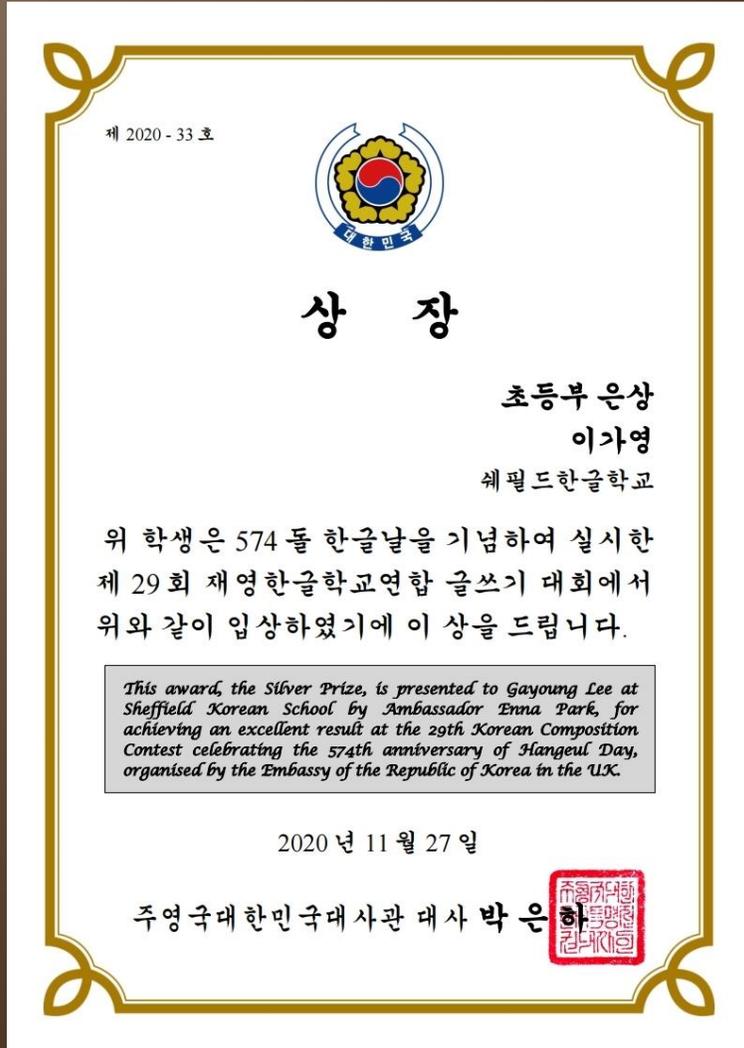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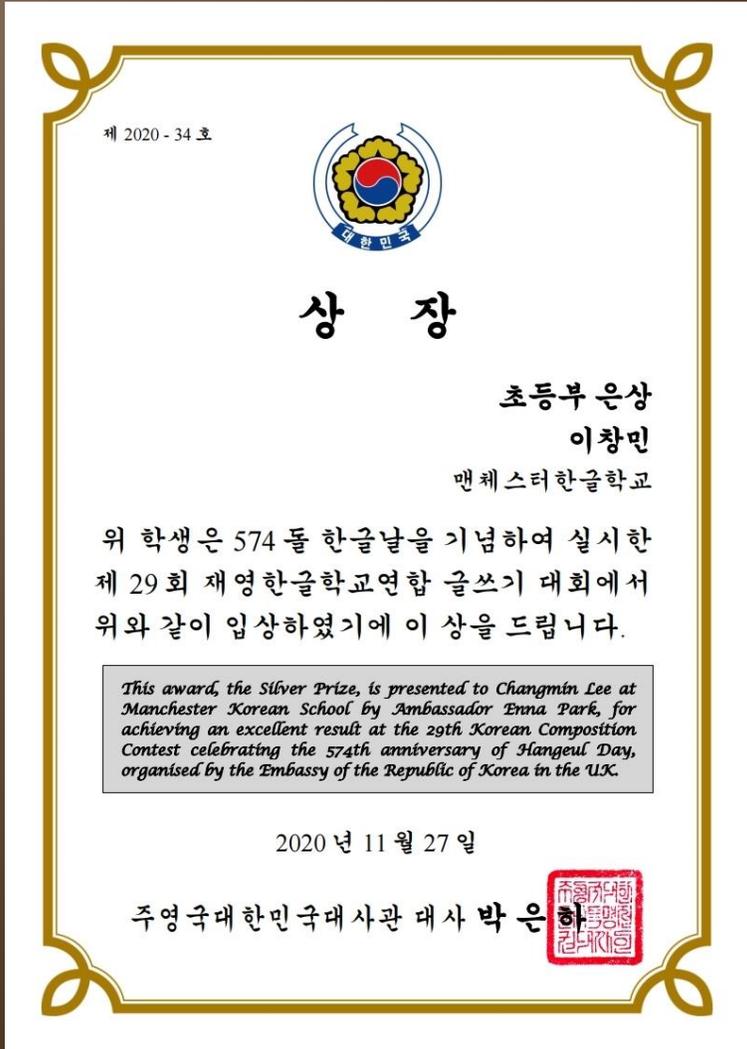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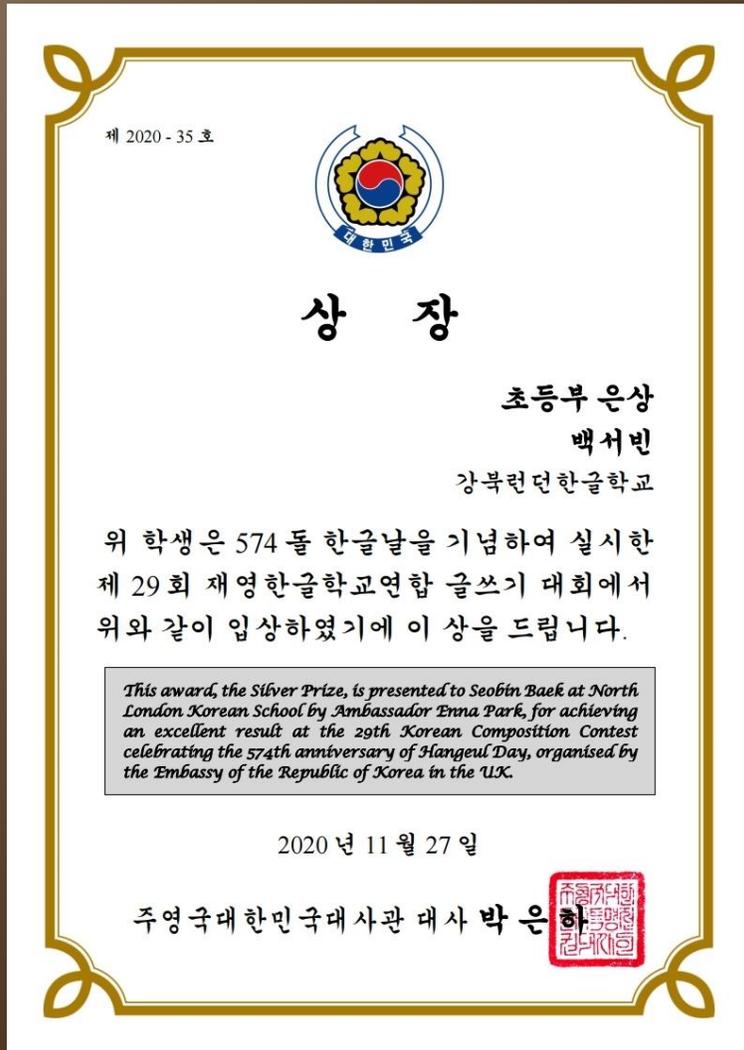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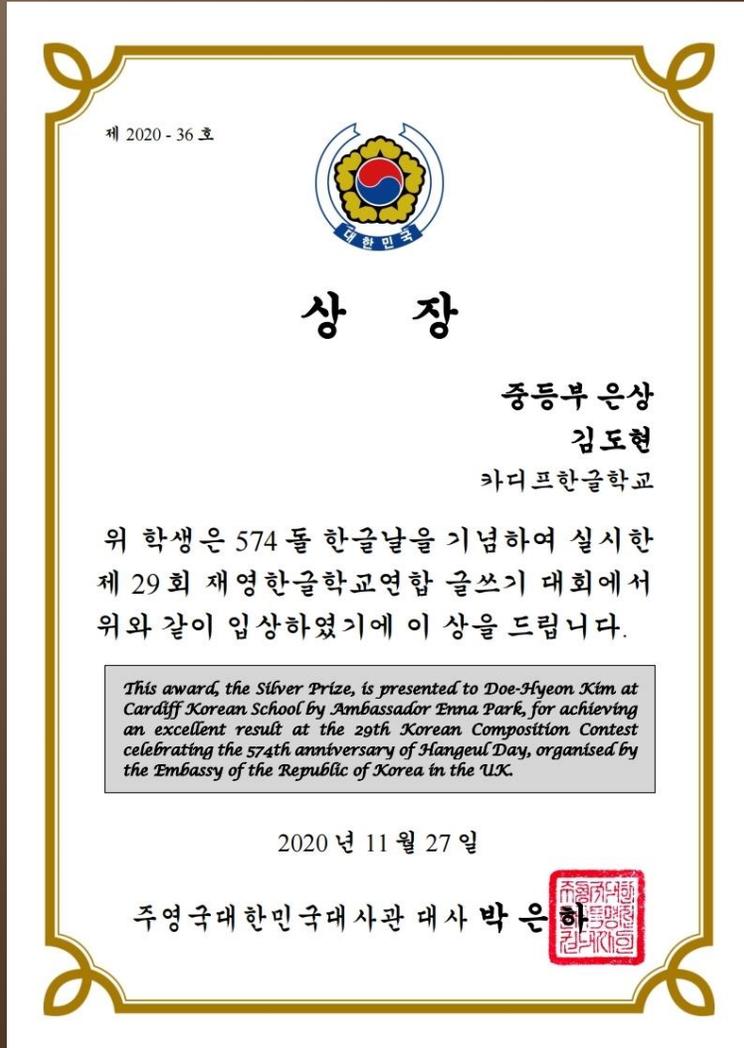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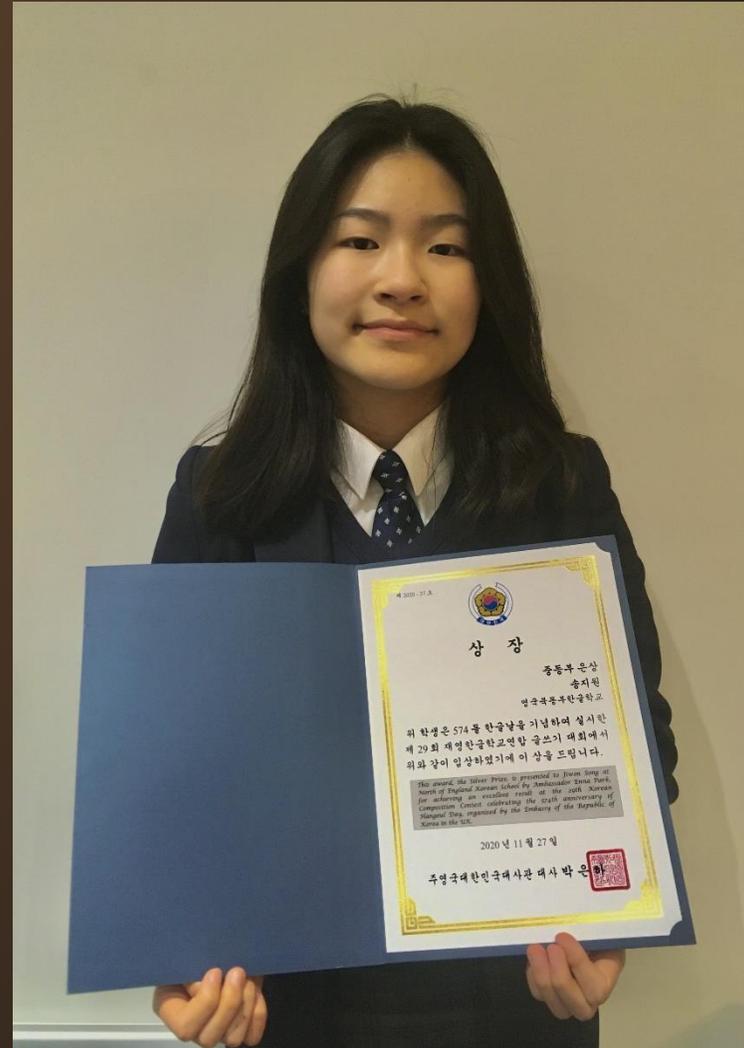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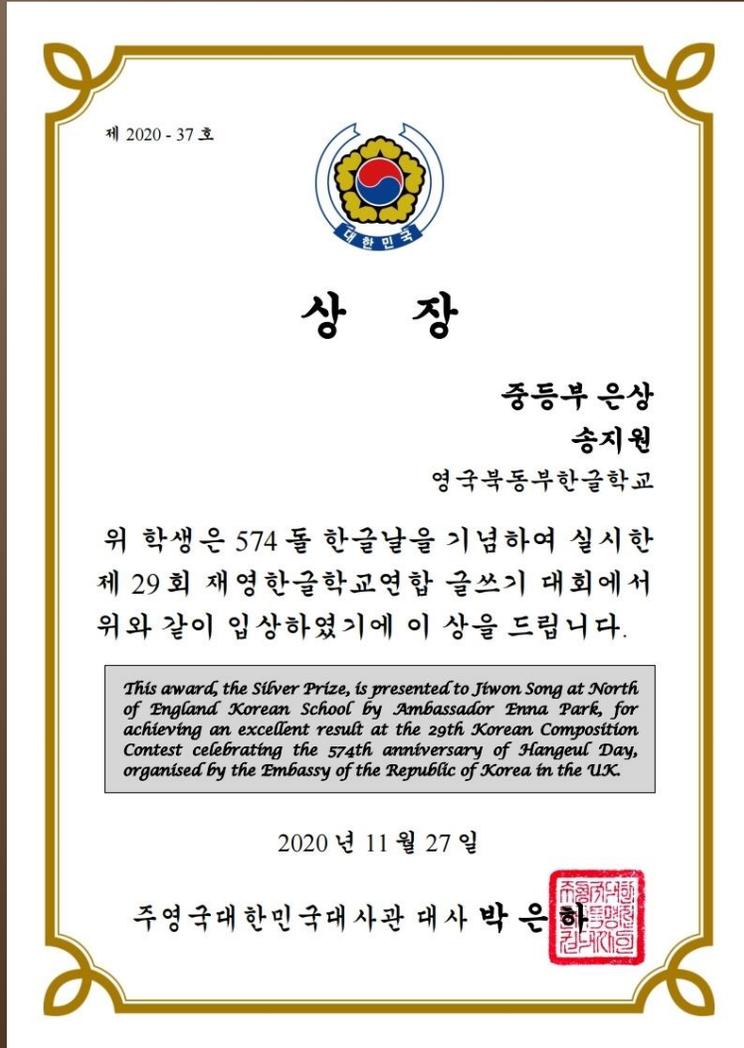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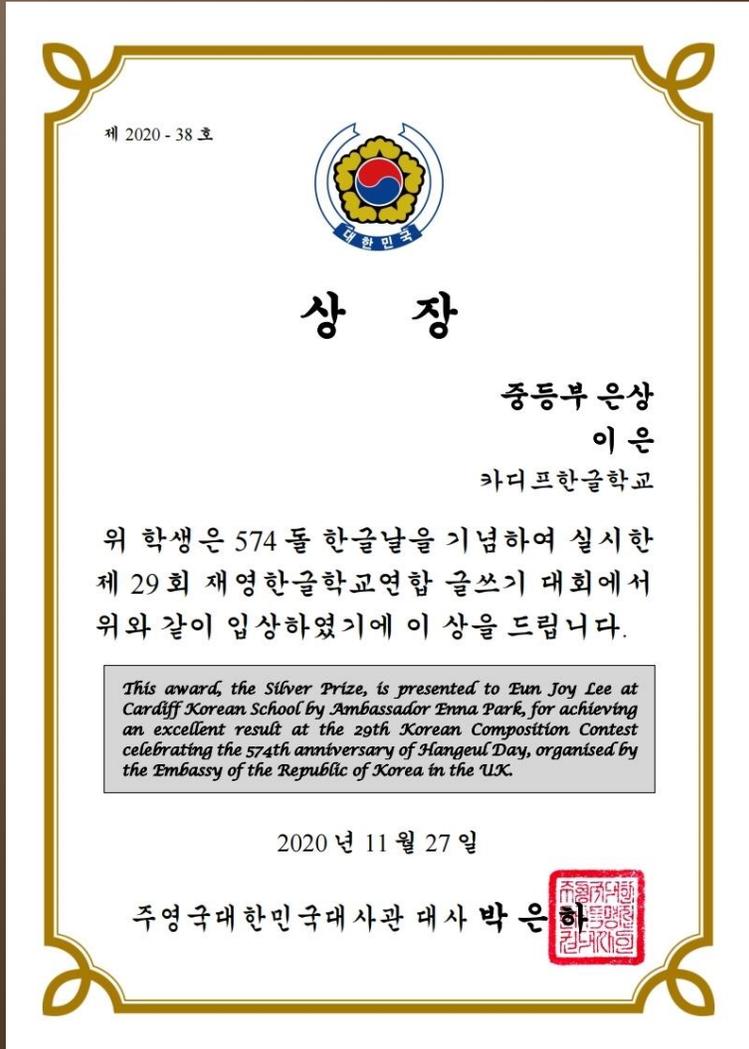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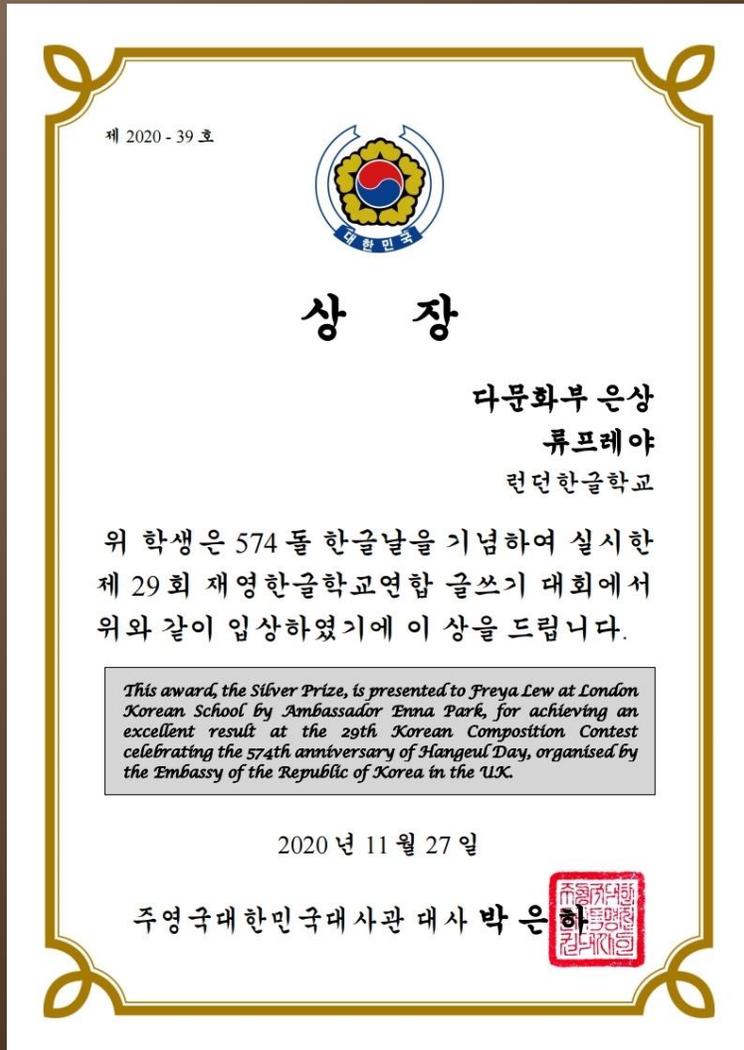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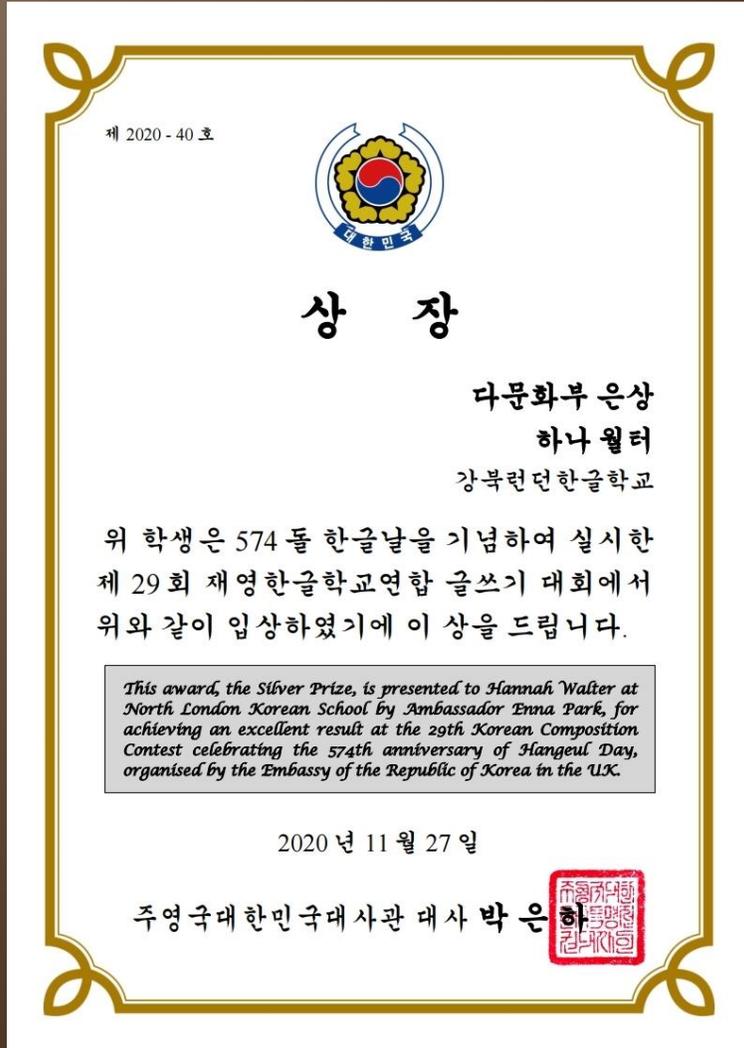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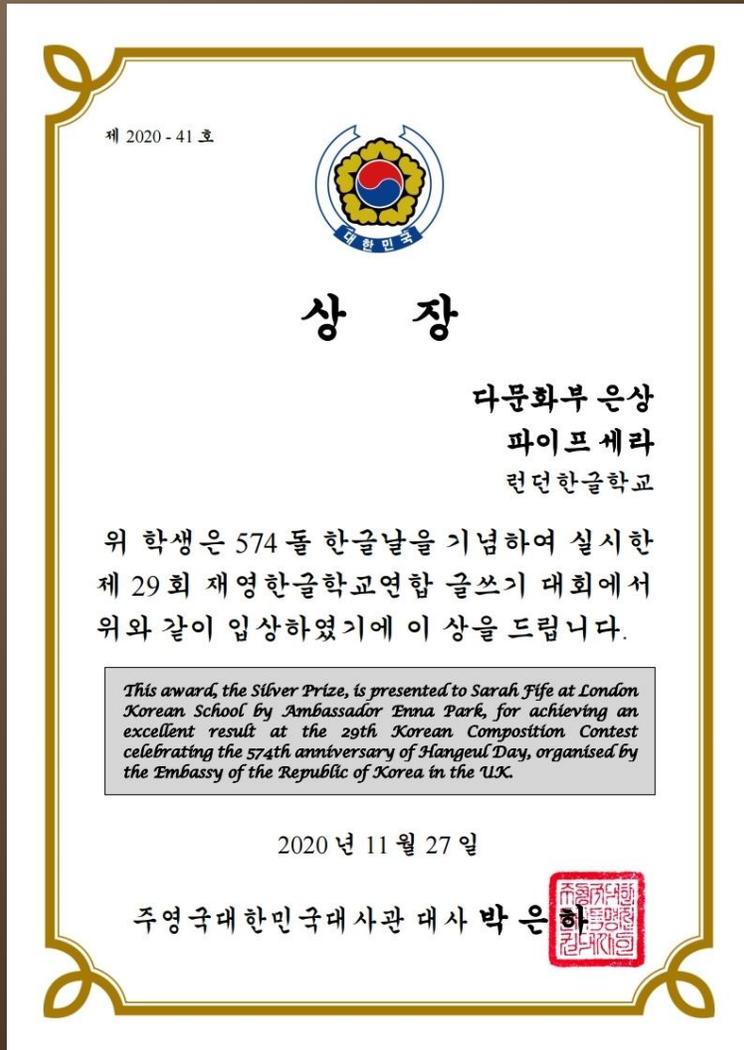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은 상



박은하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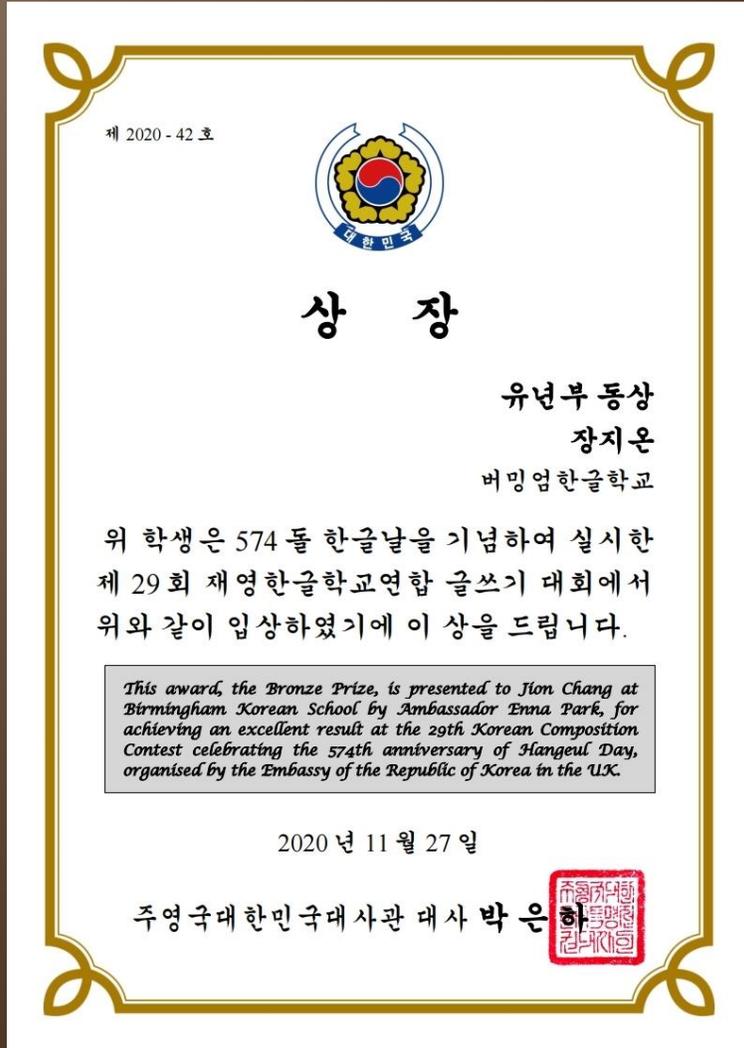
동 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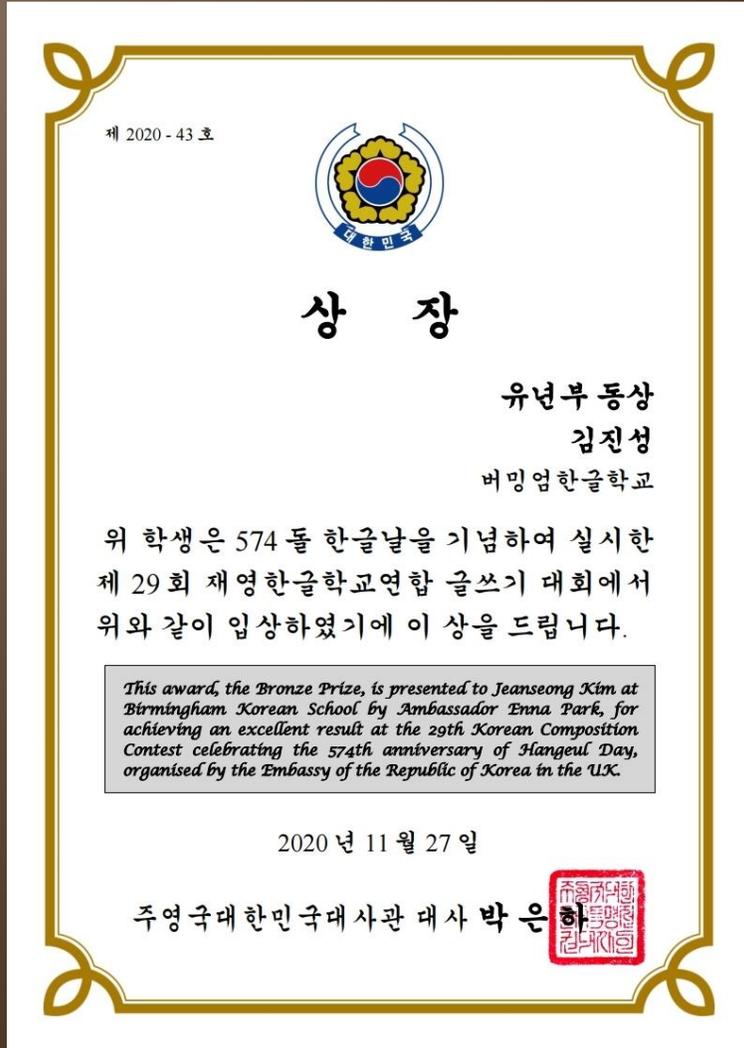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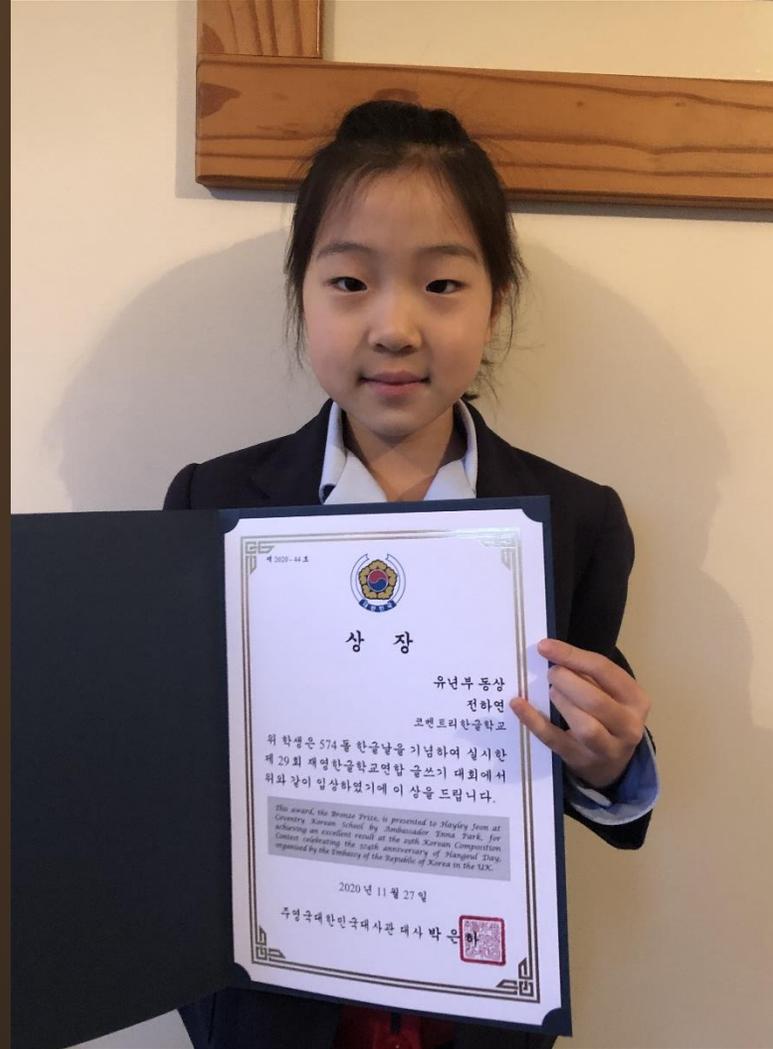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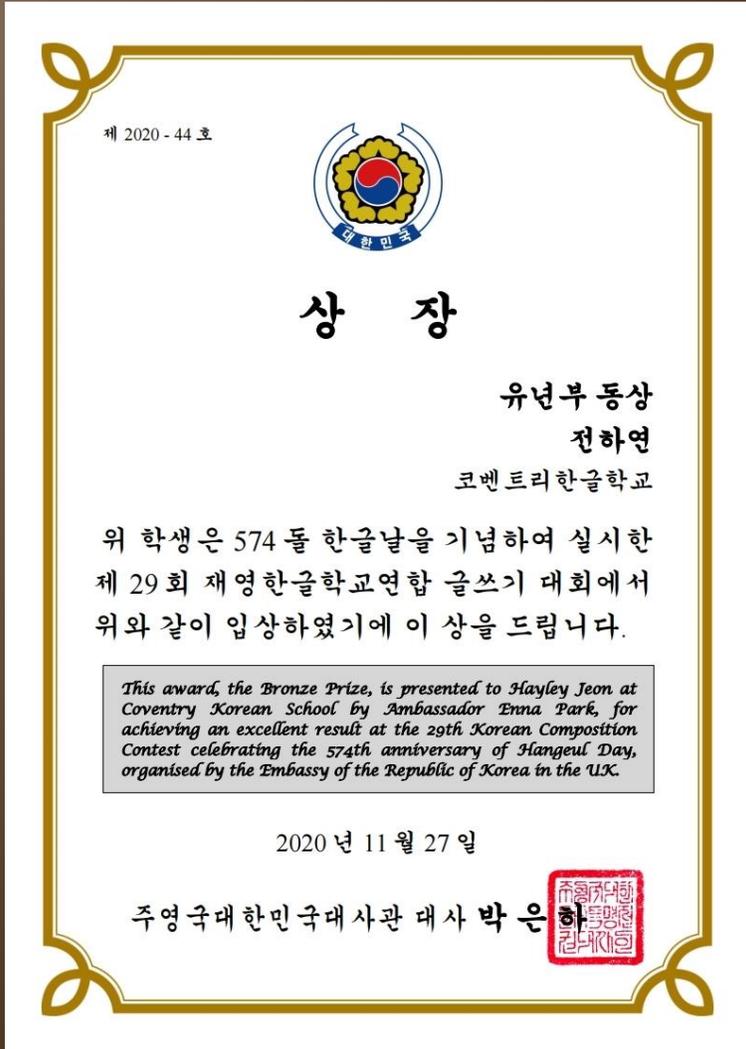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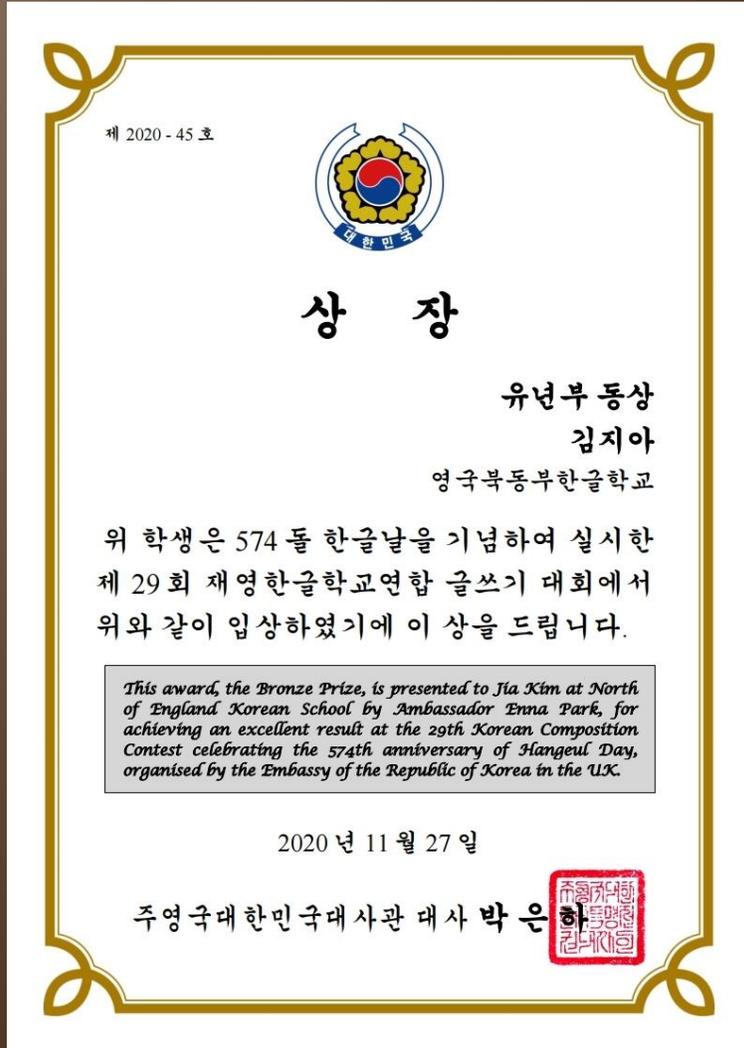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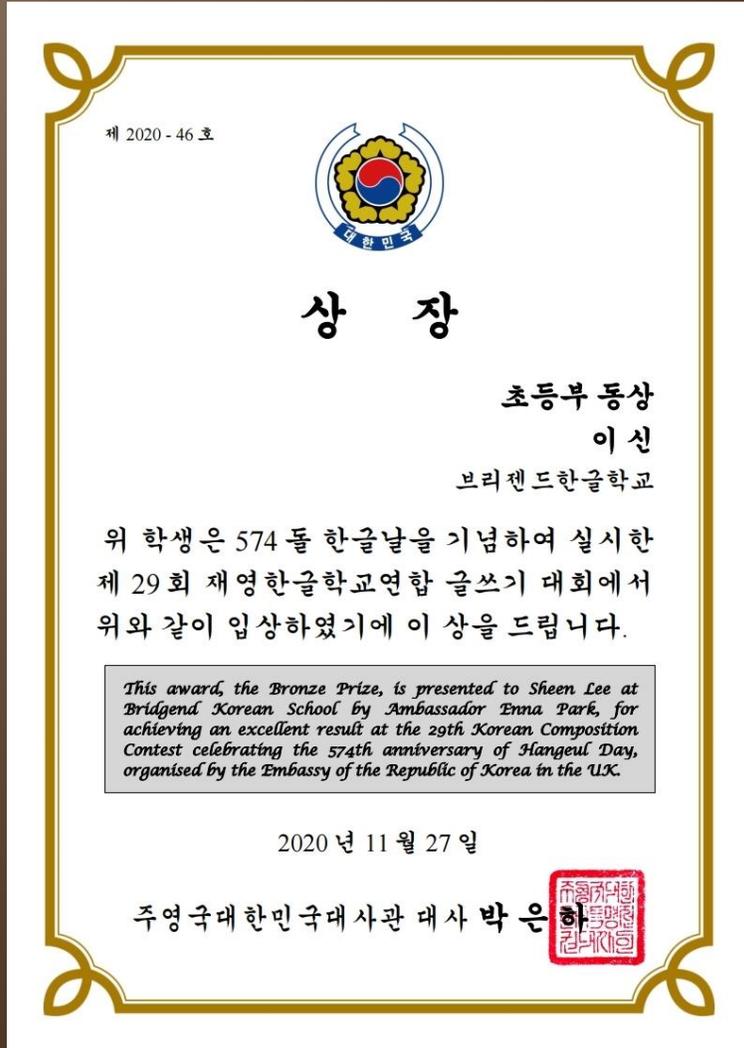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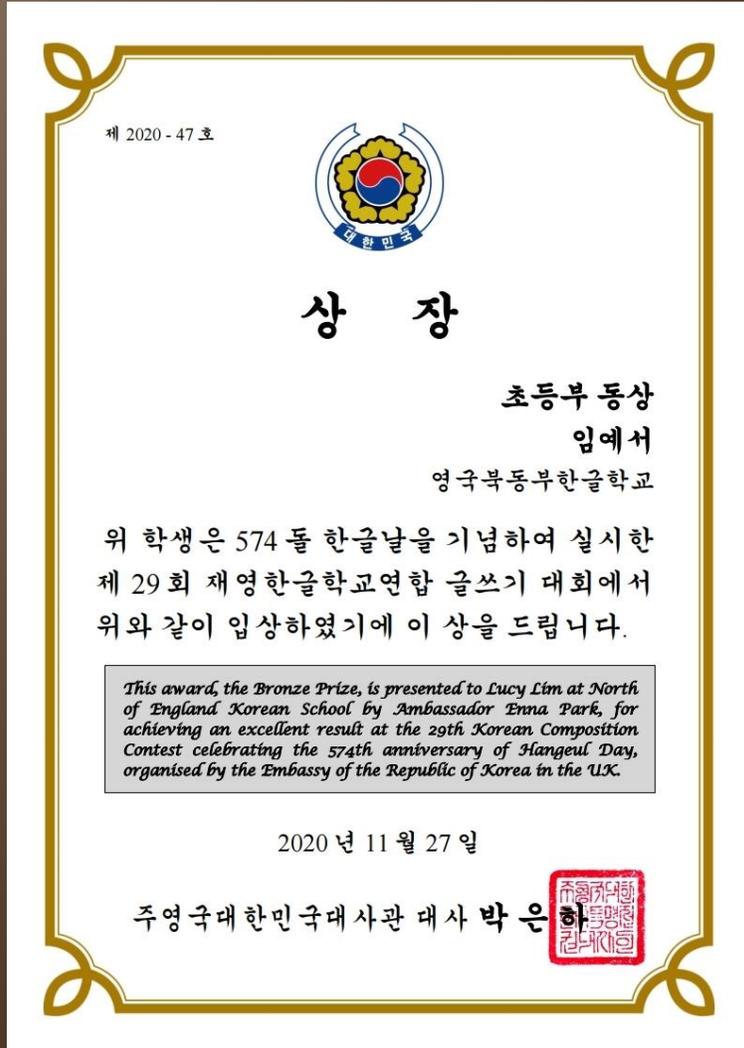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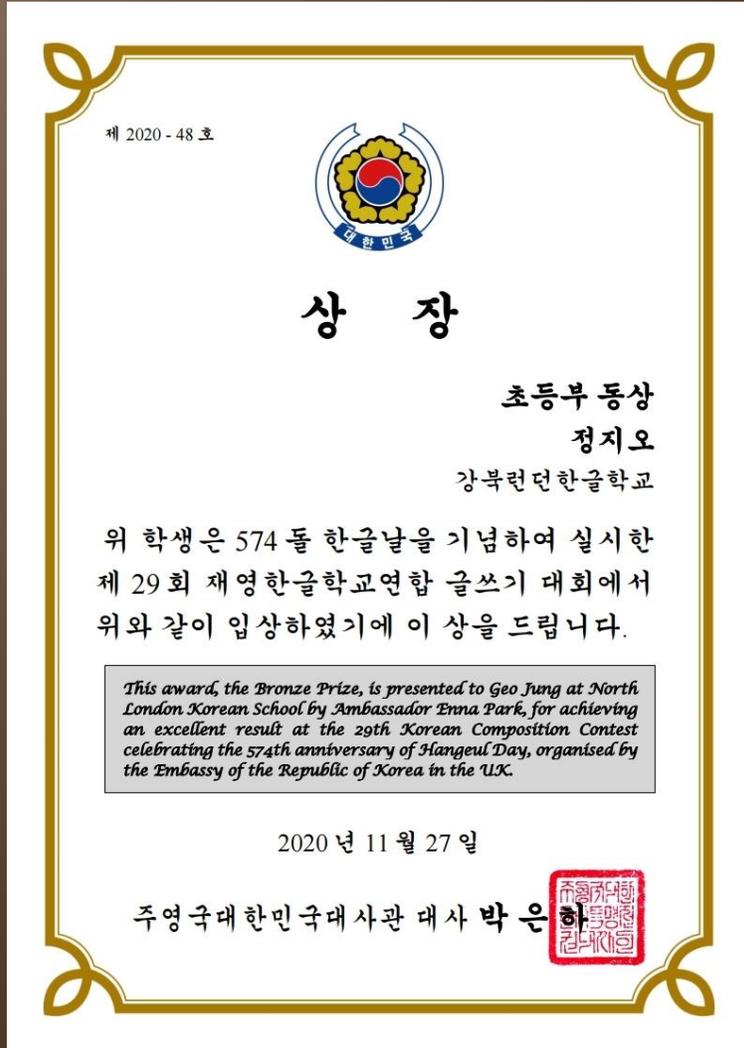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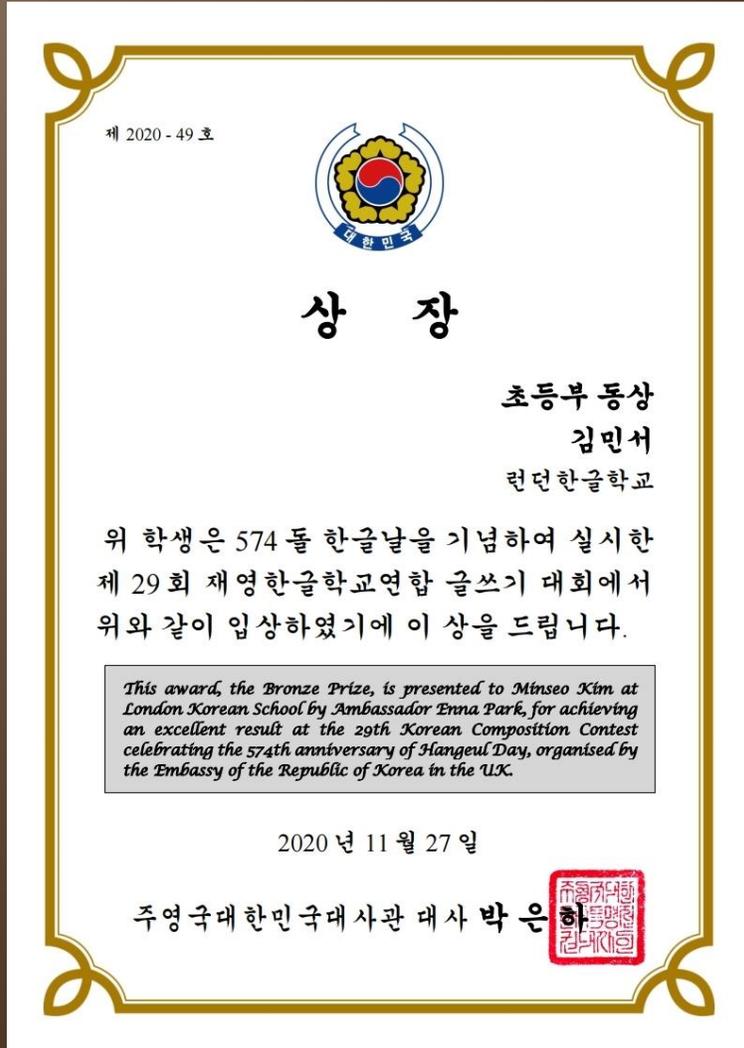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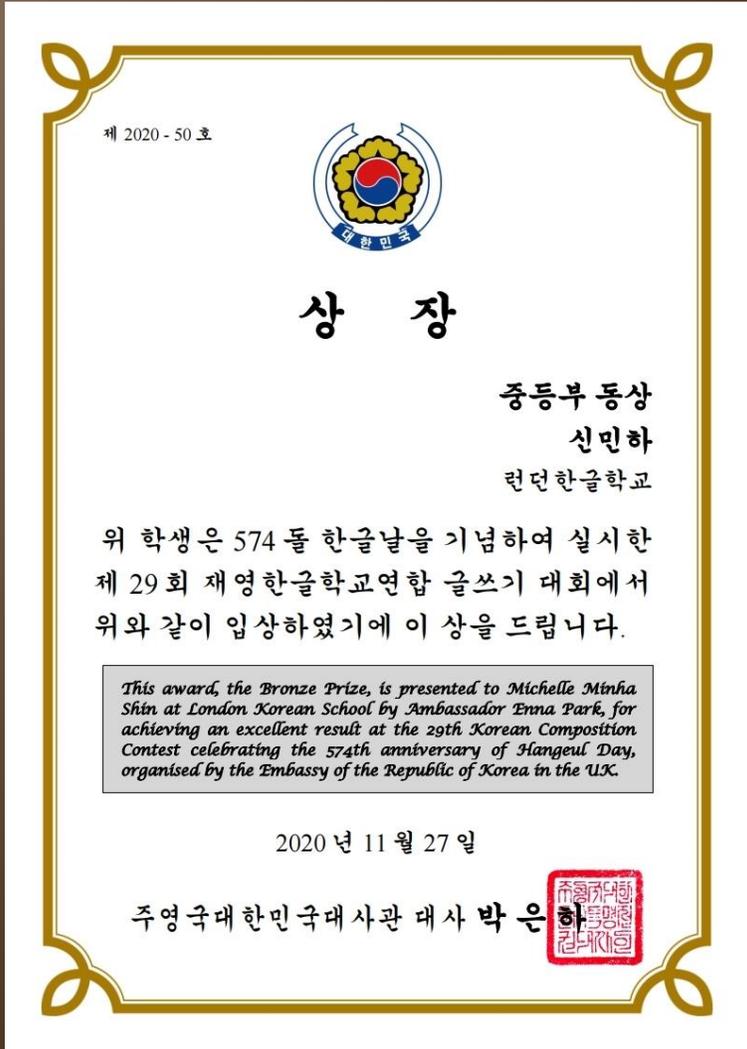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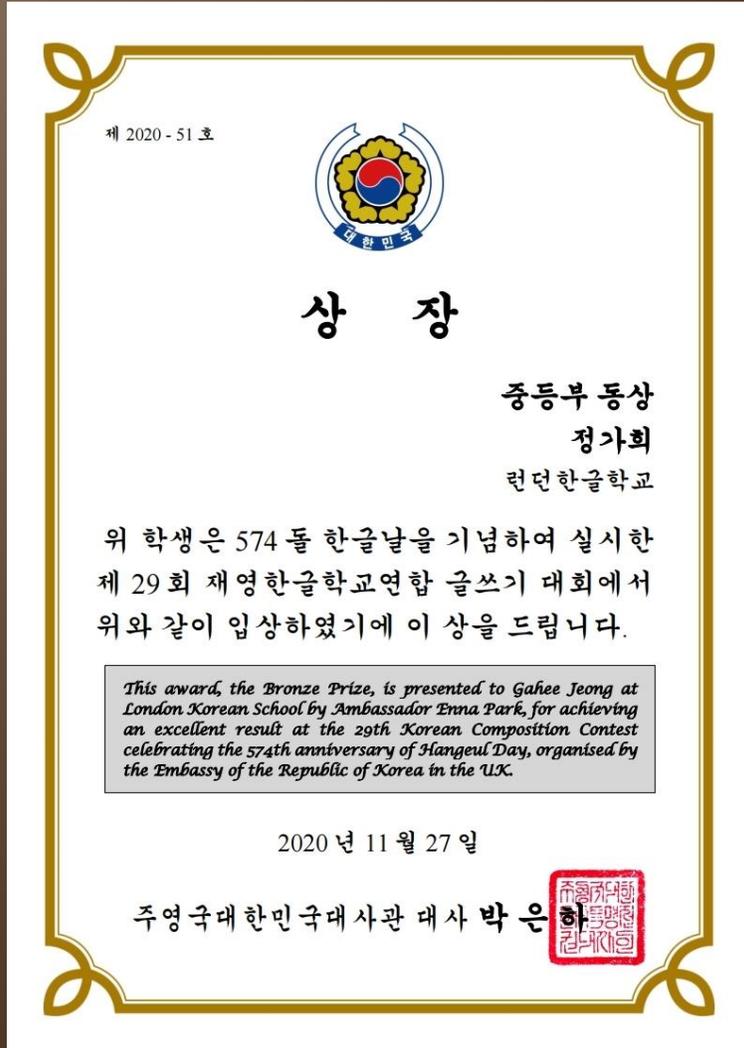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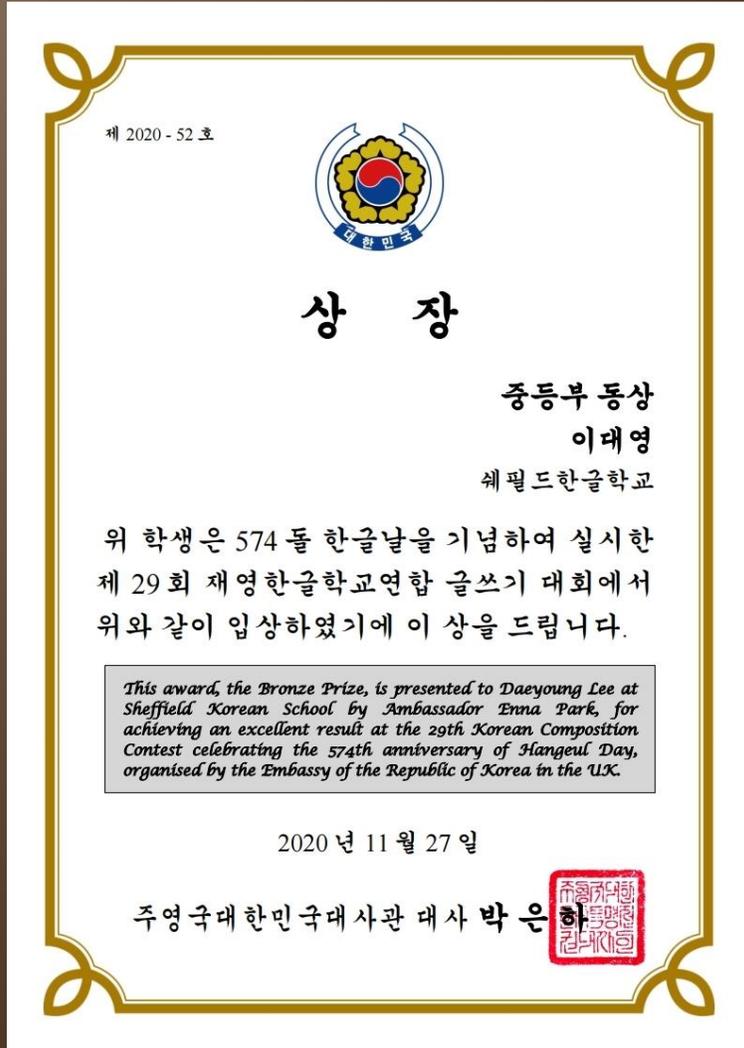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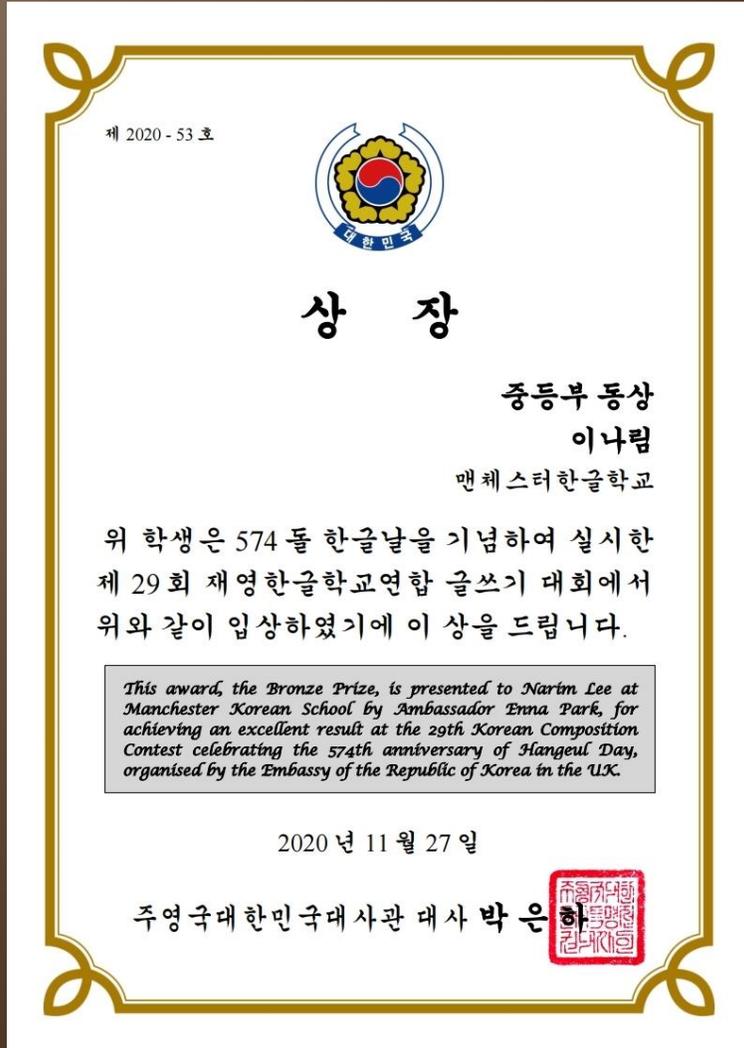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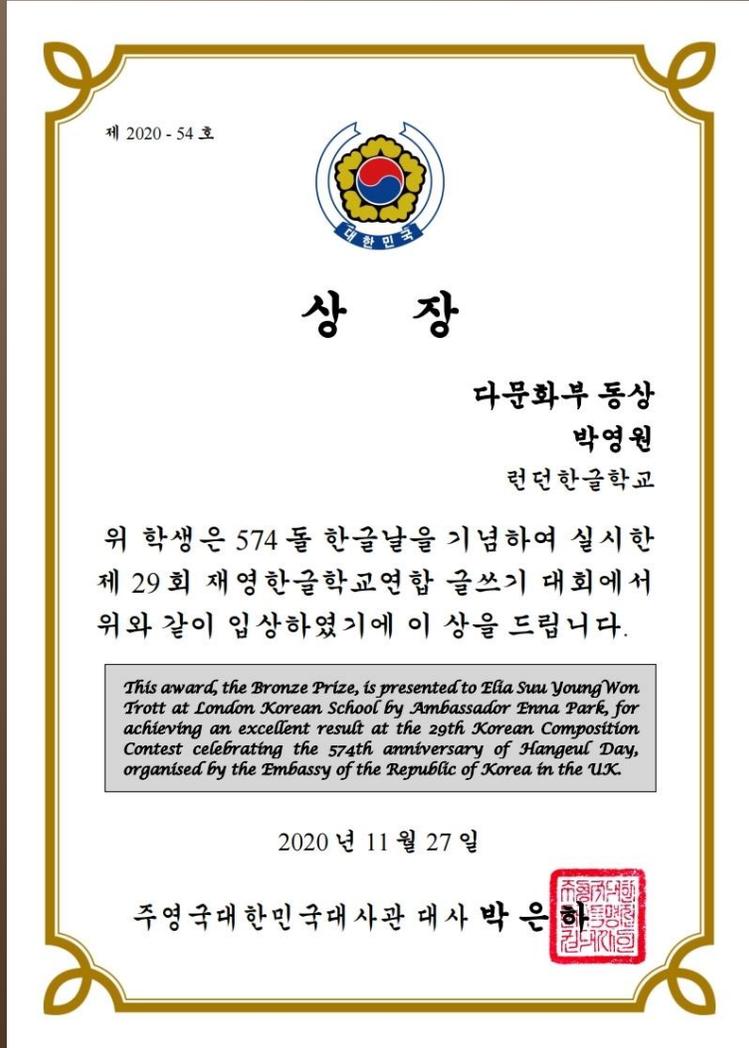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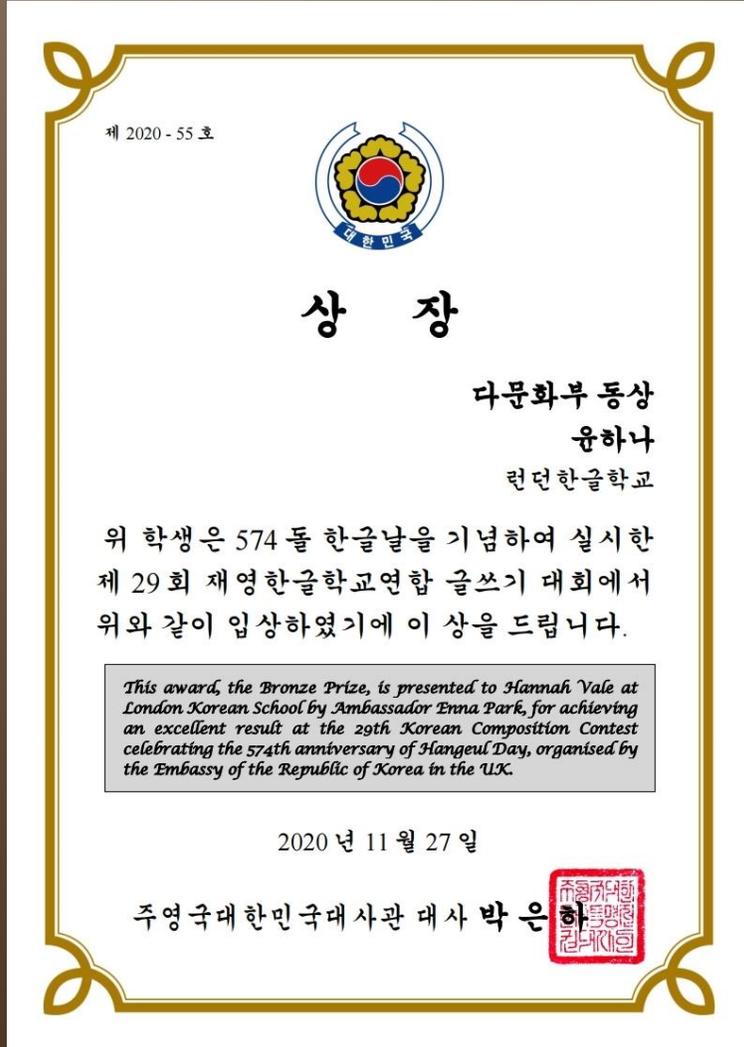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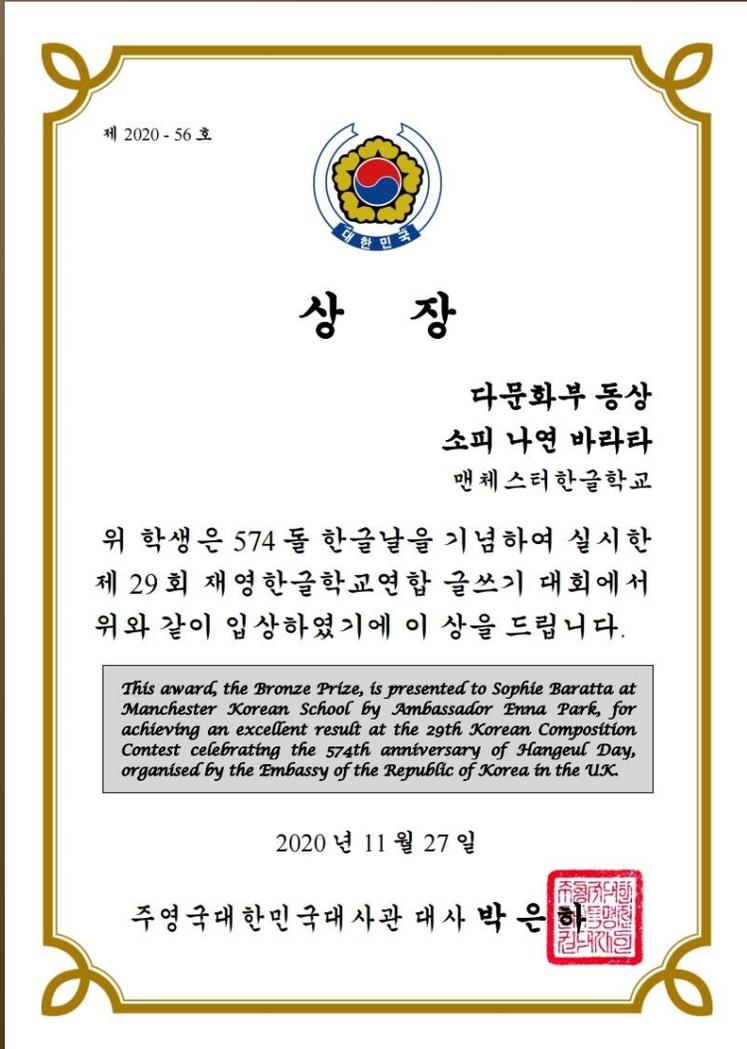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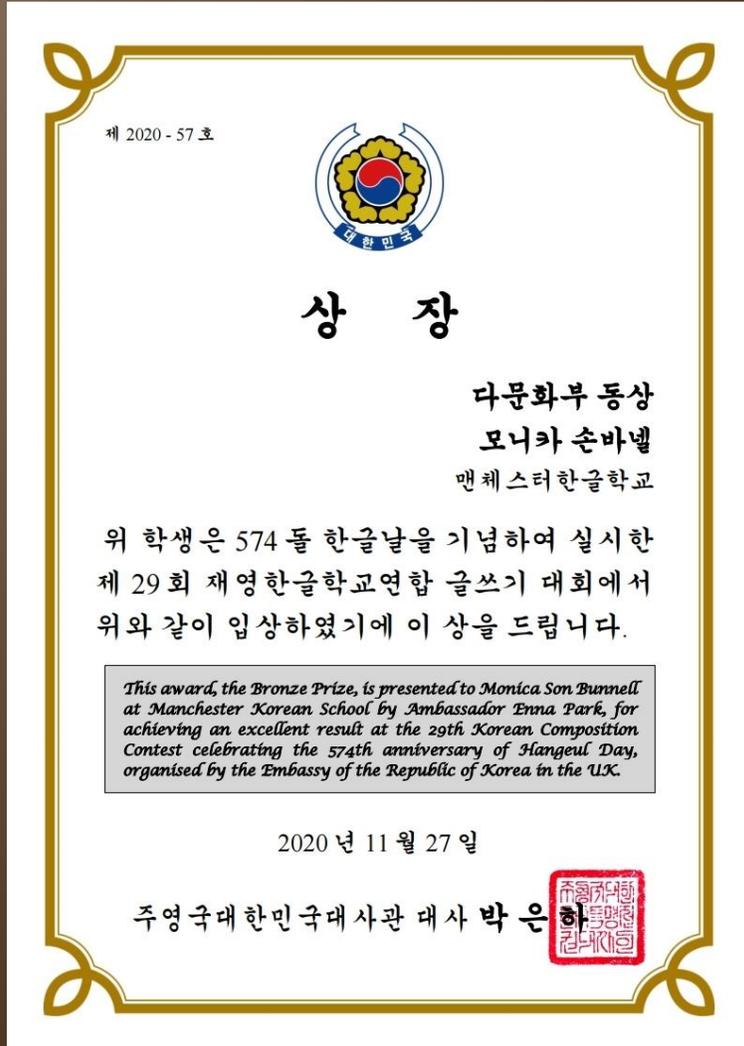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동상



박은하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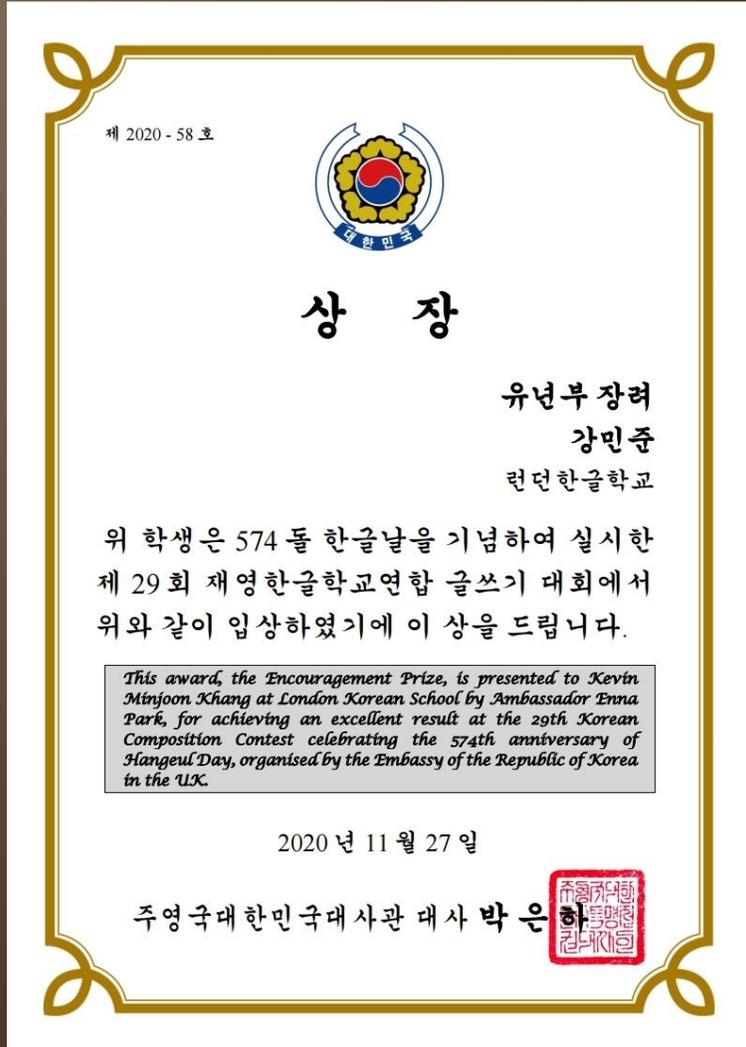


장려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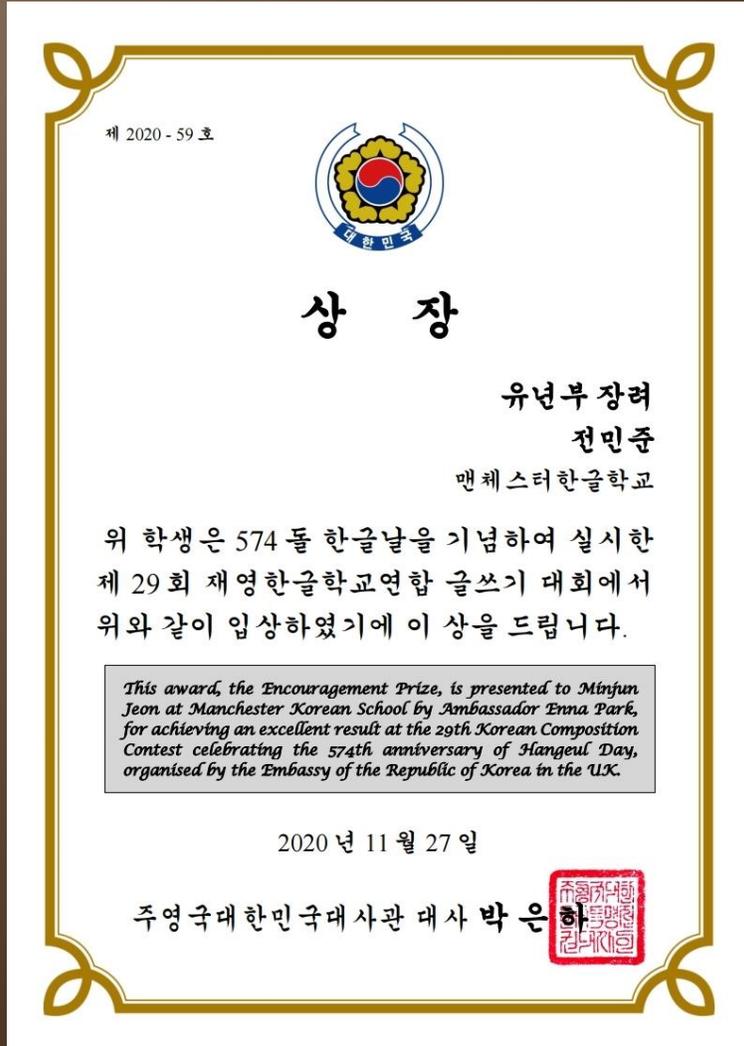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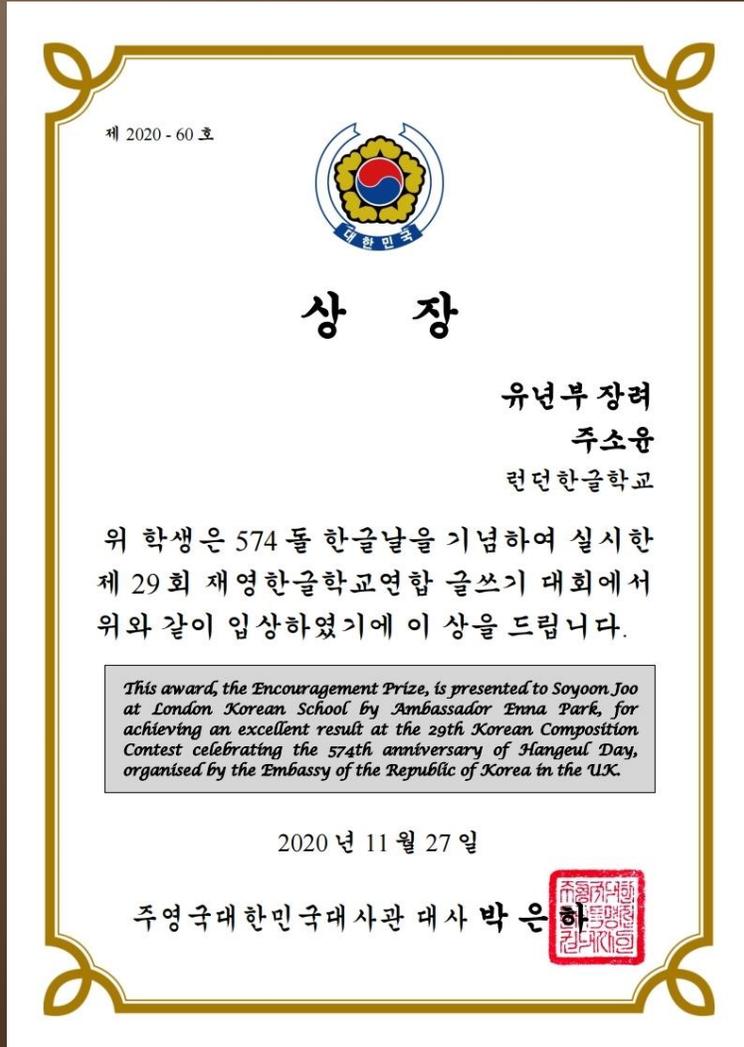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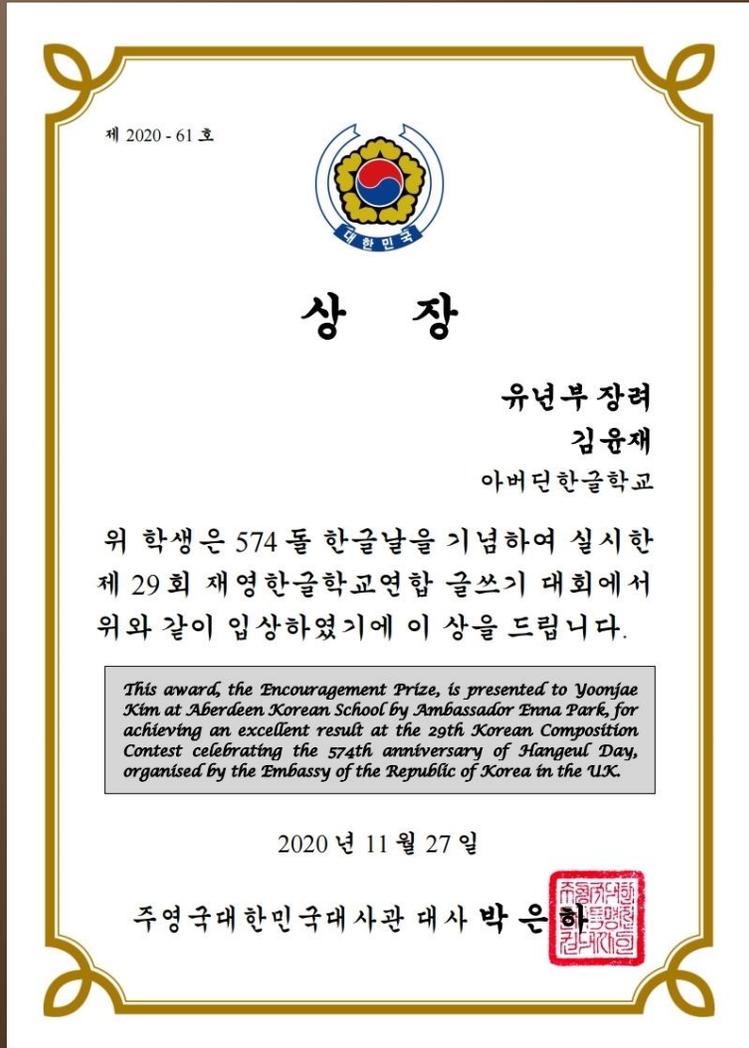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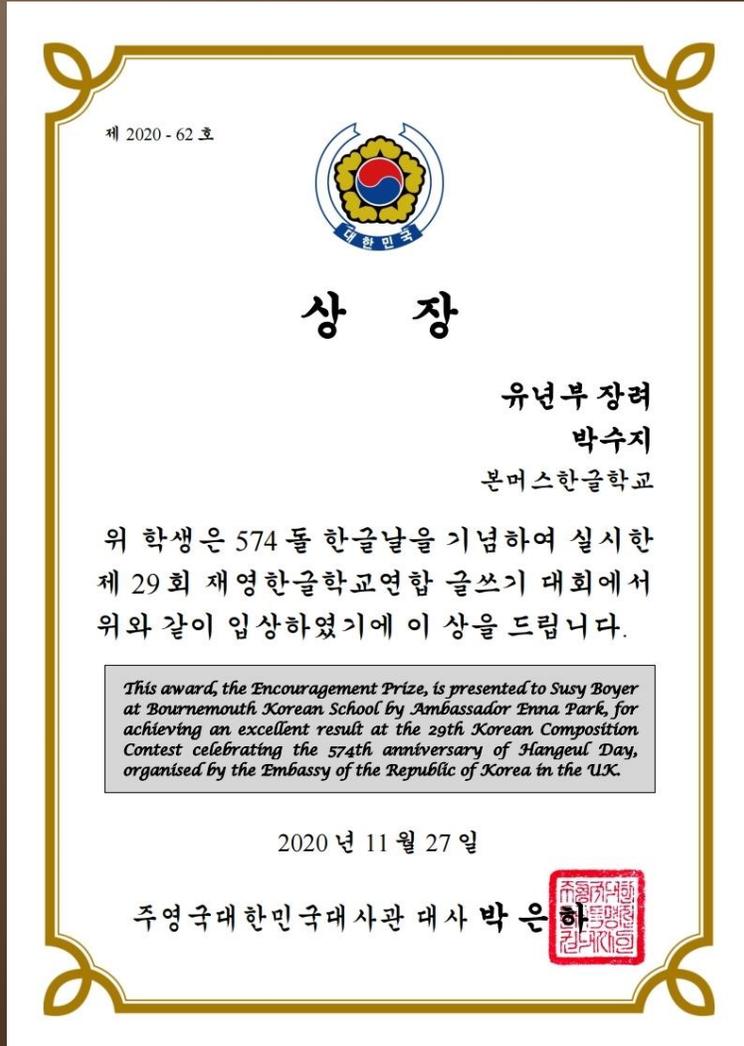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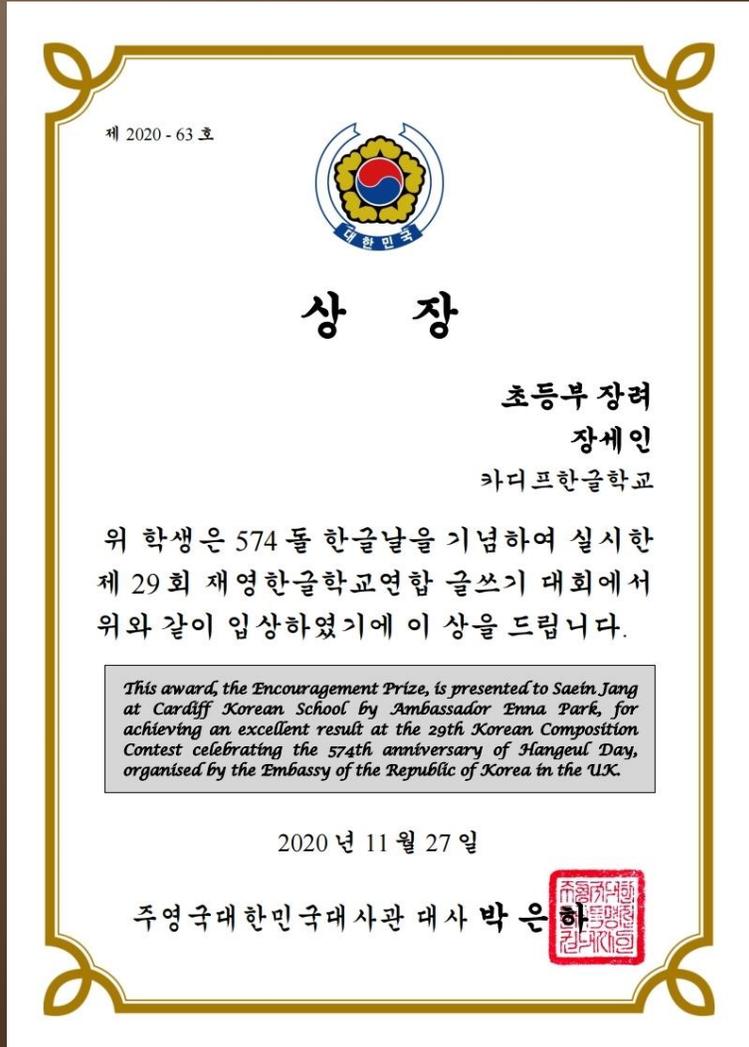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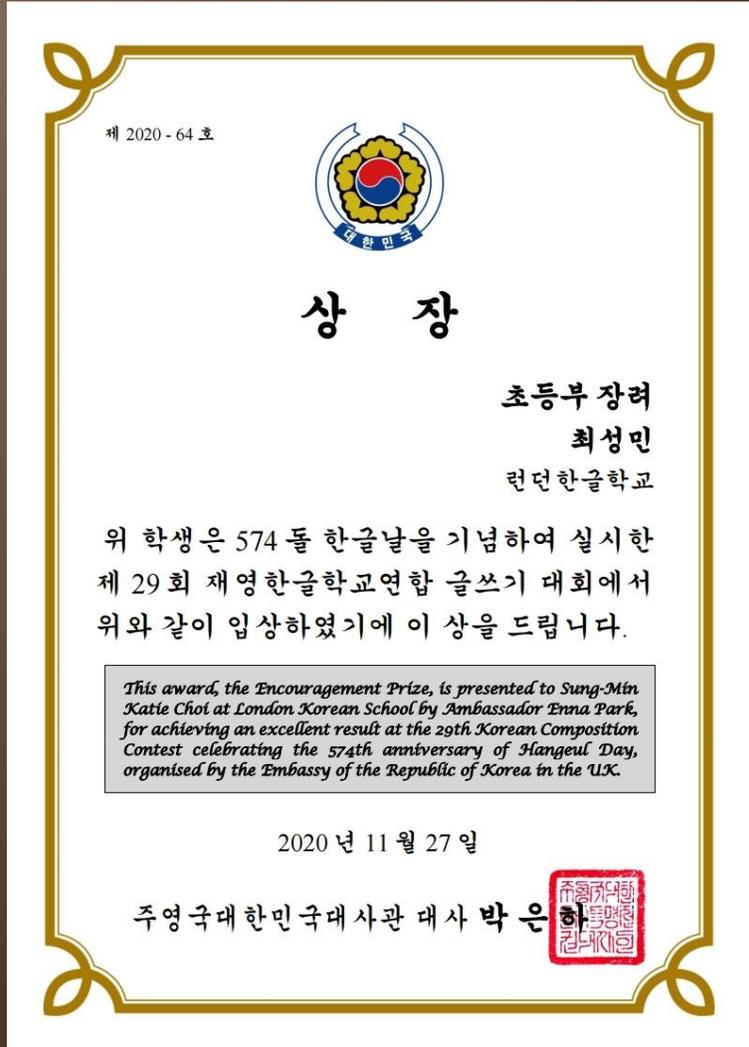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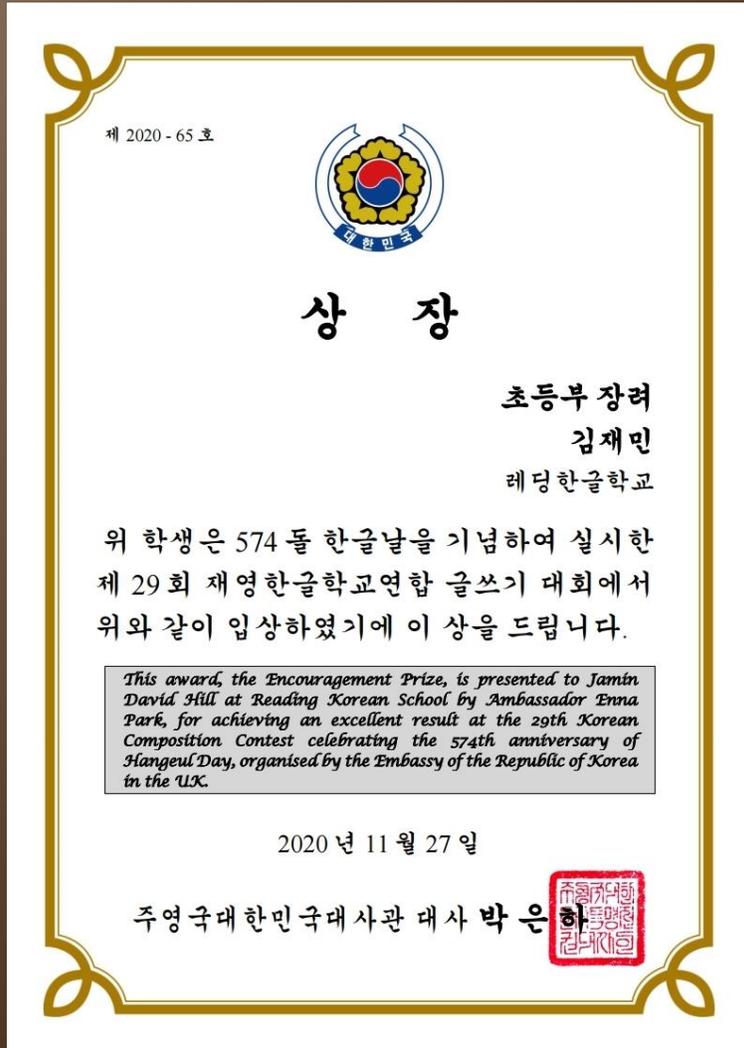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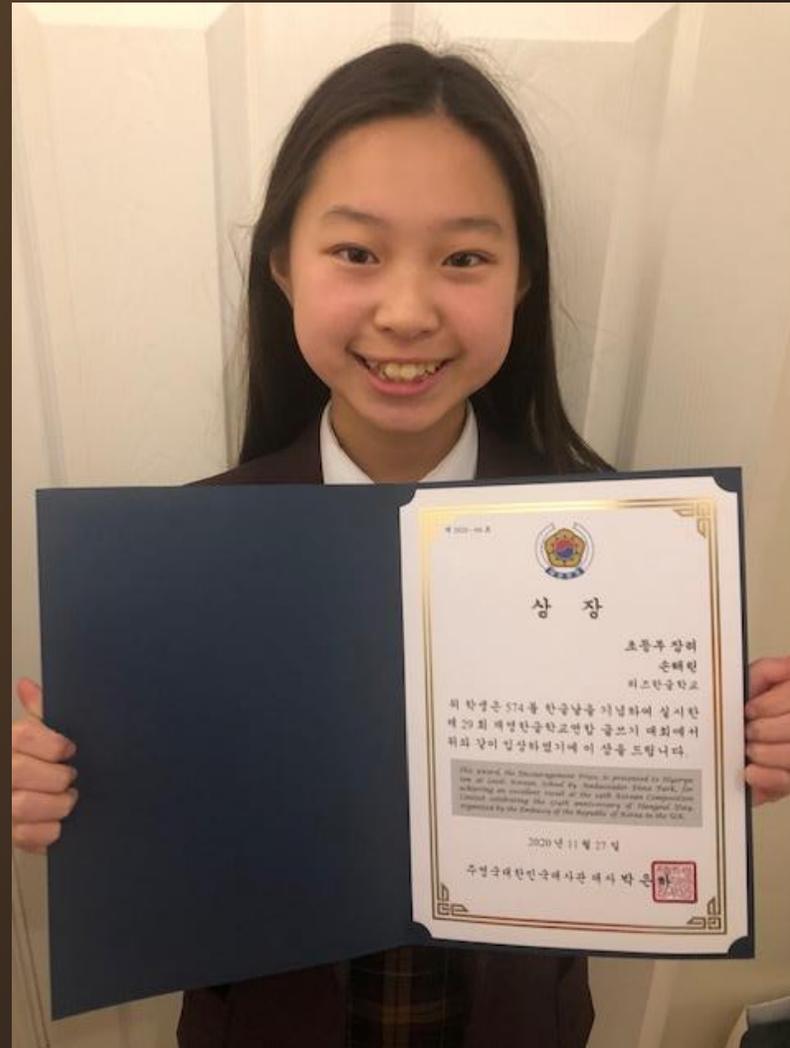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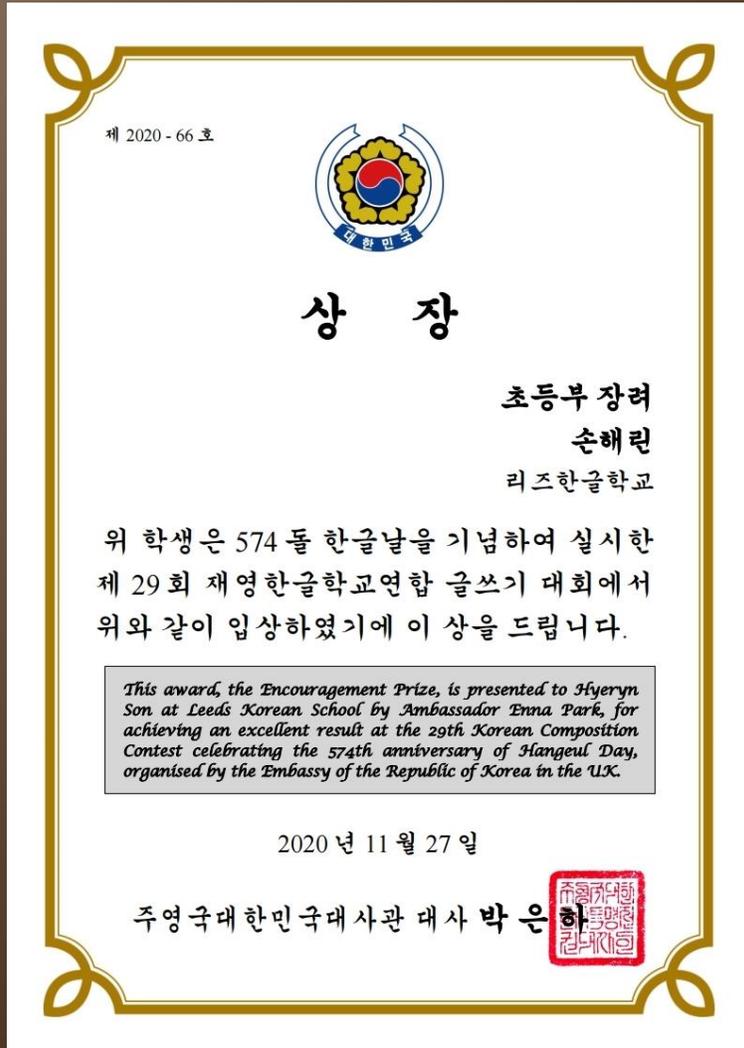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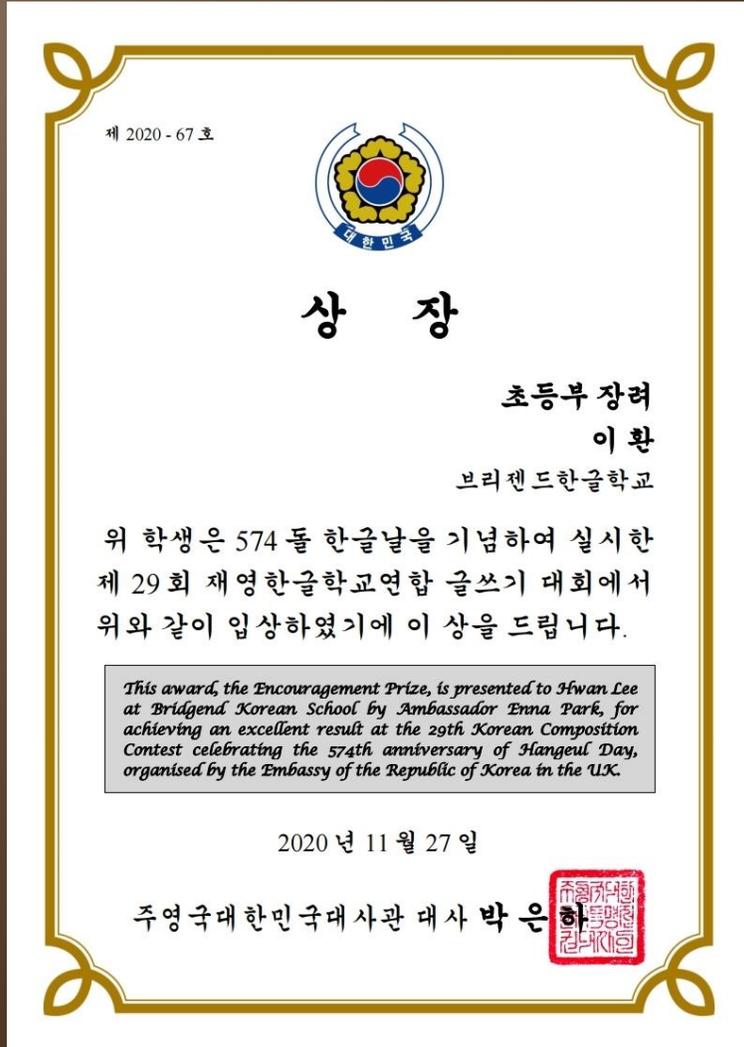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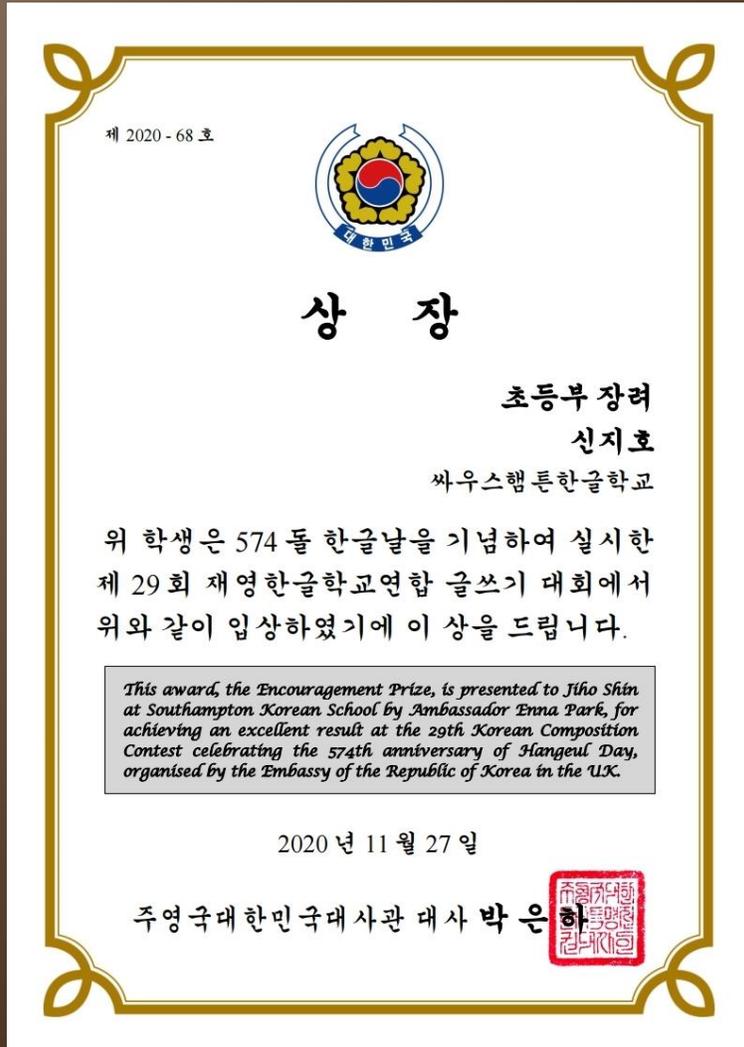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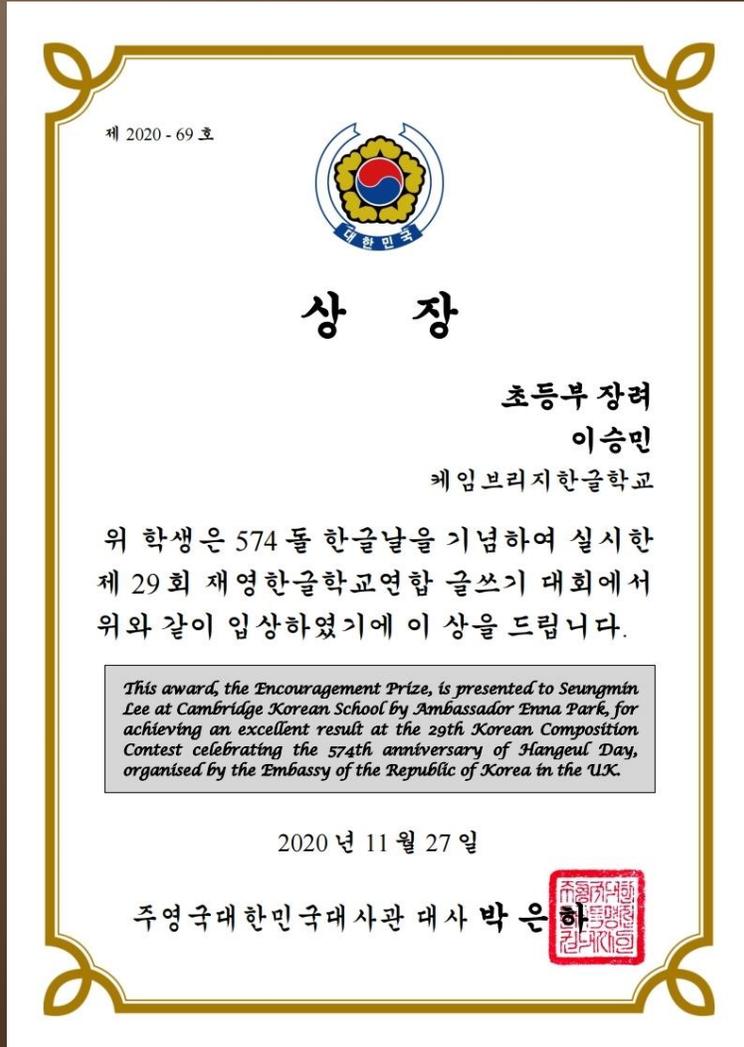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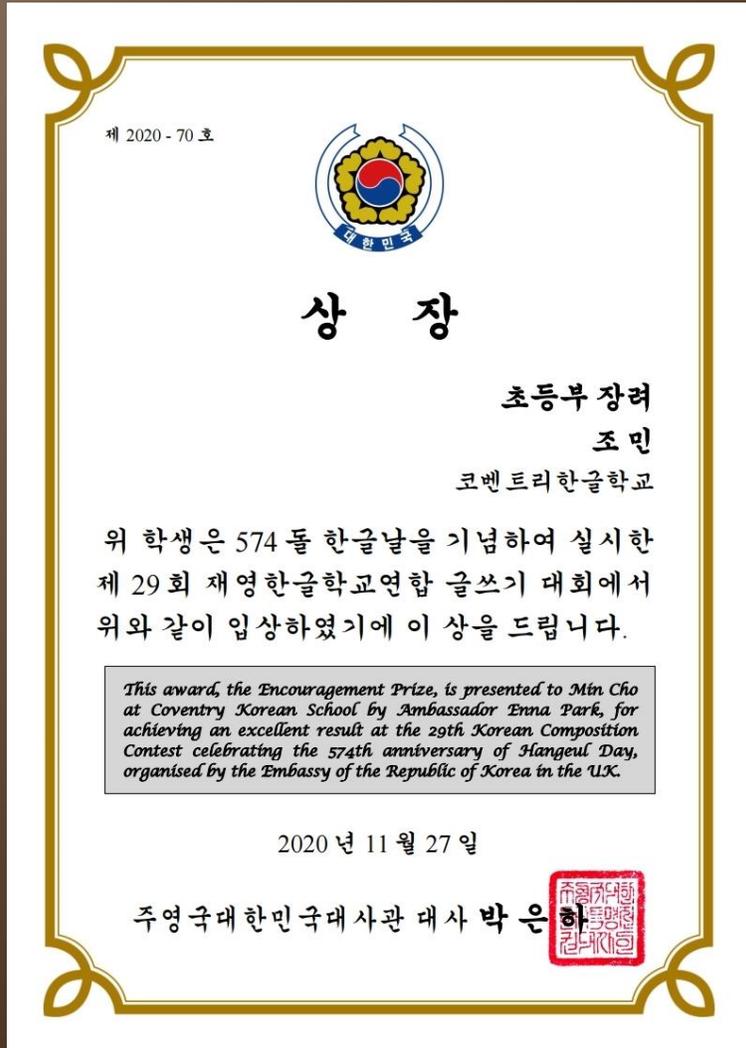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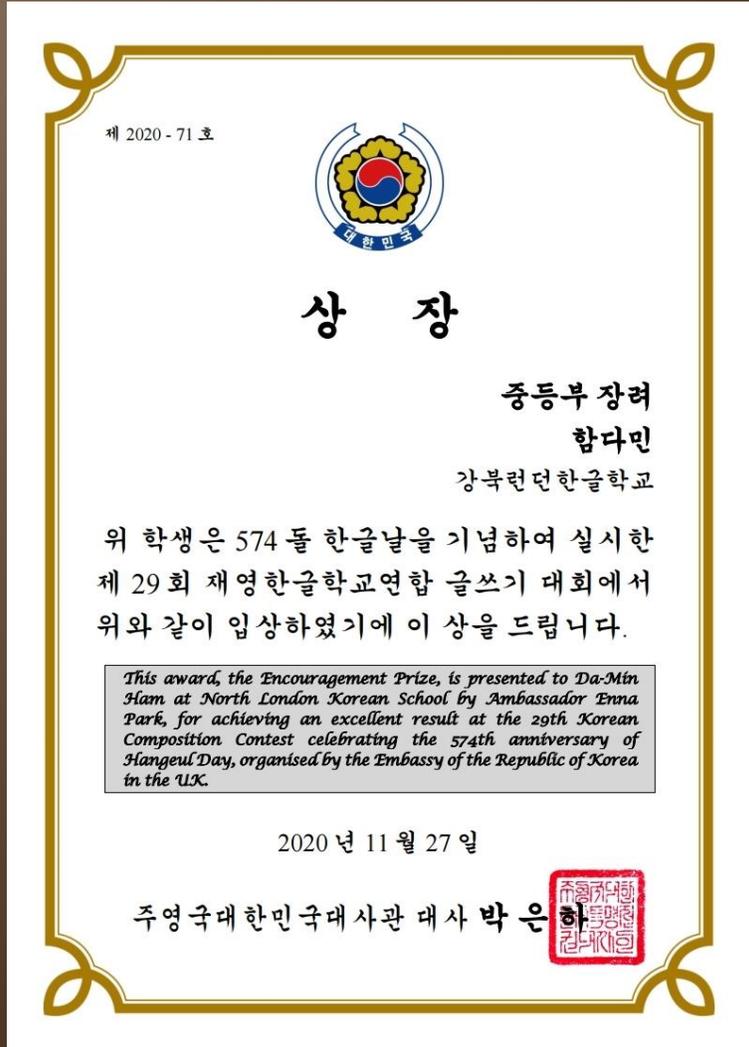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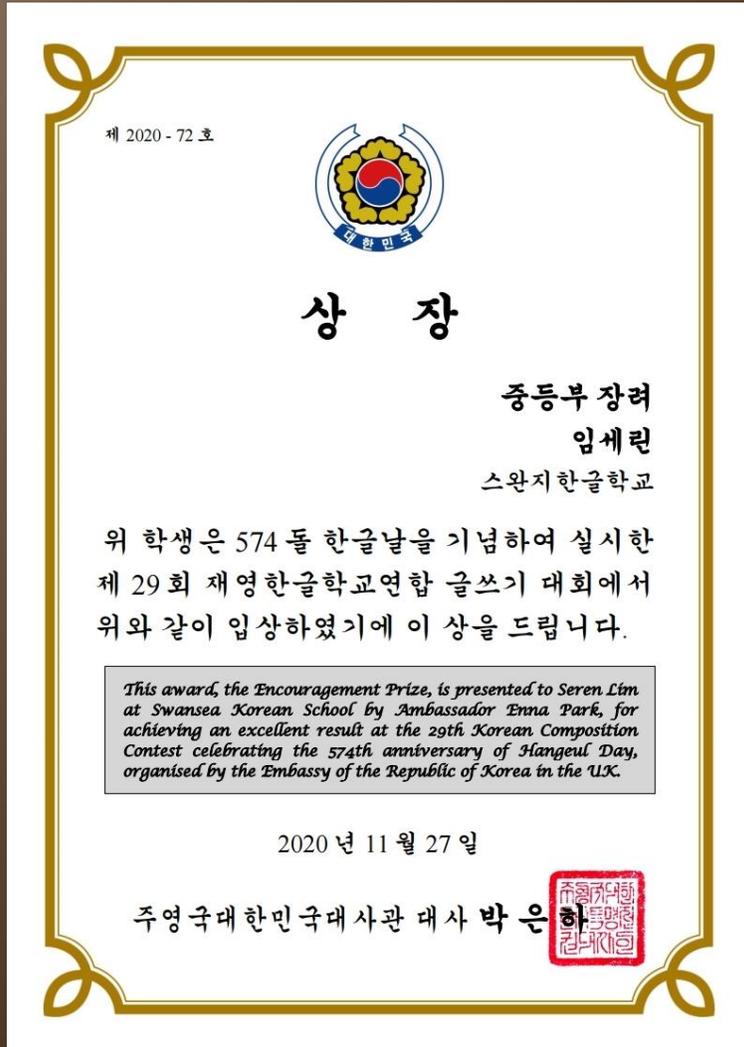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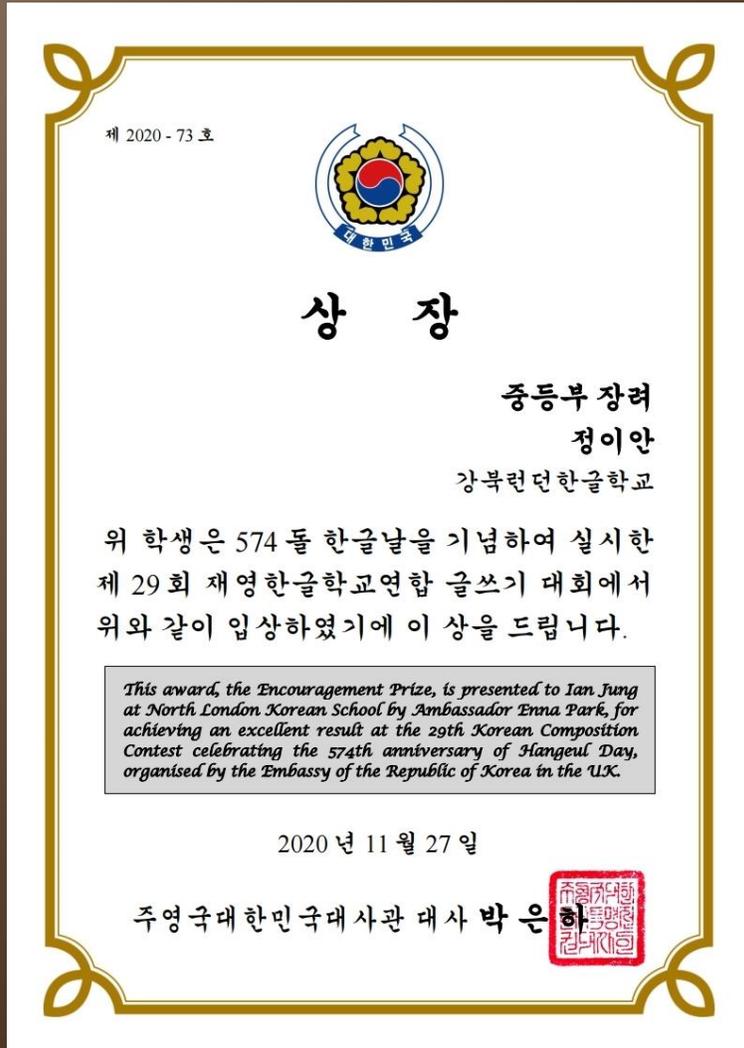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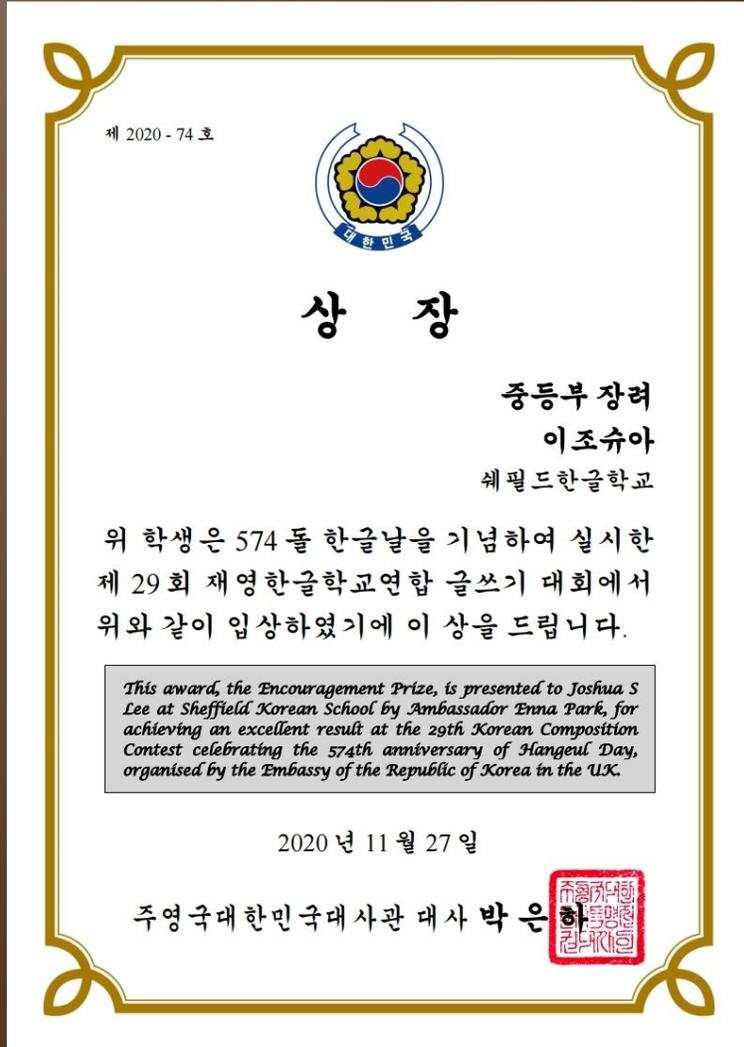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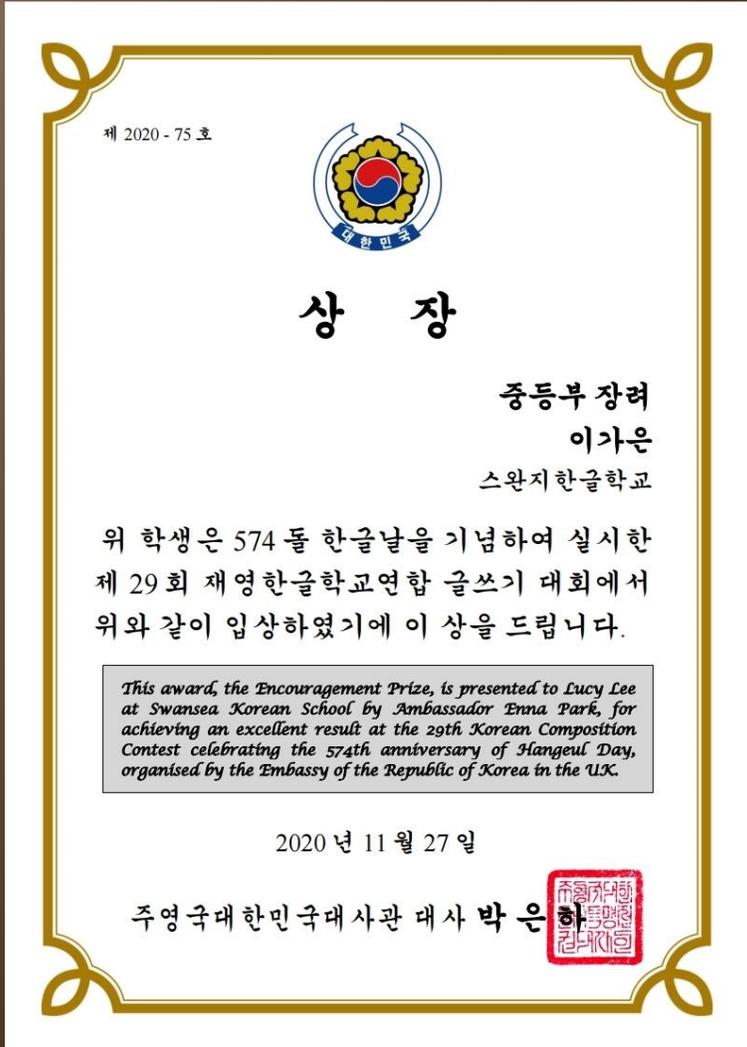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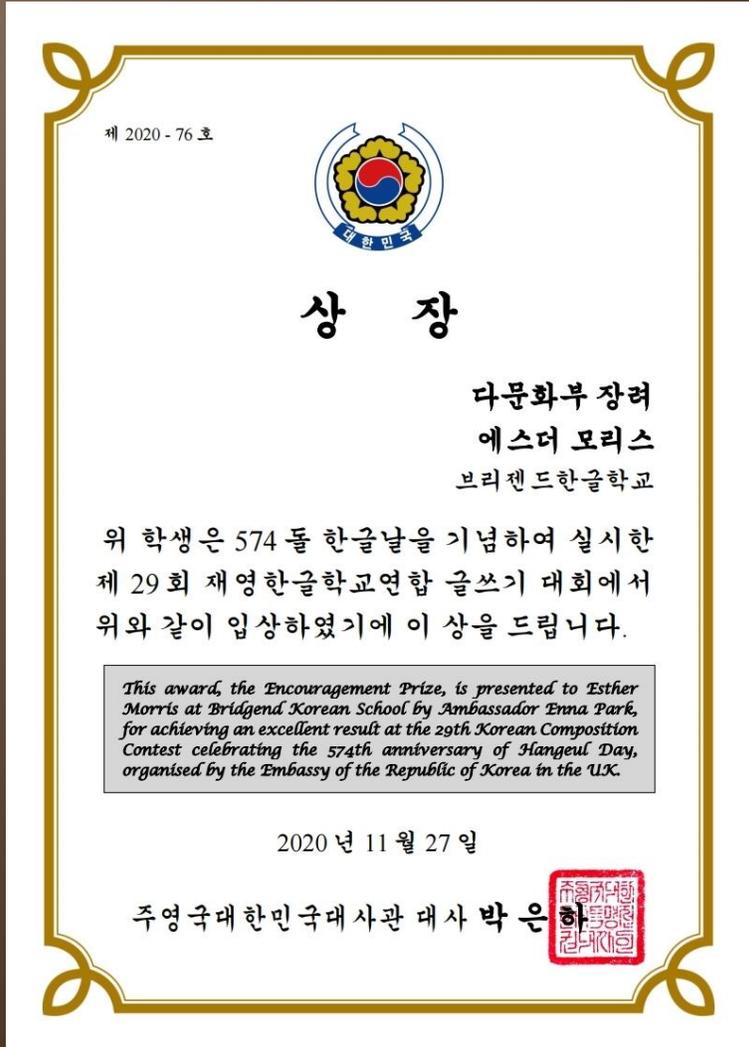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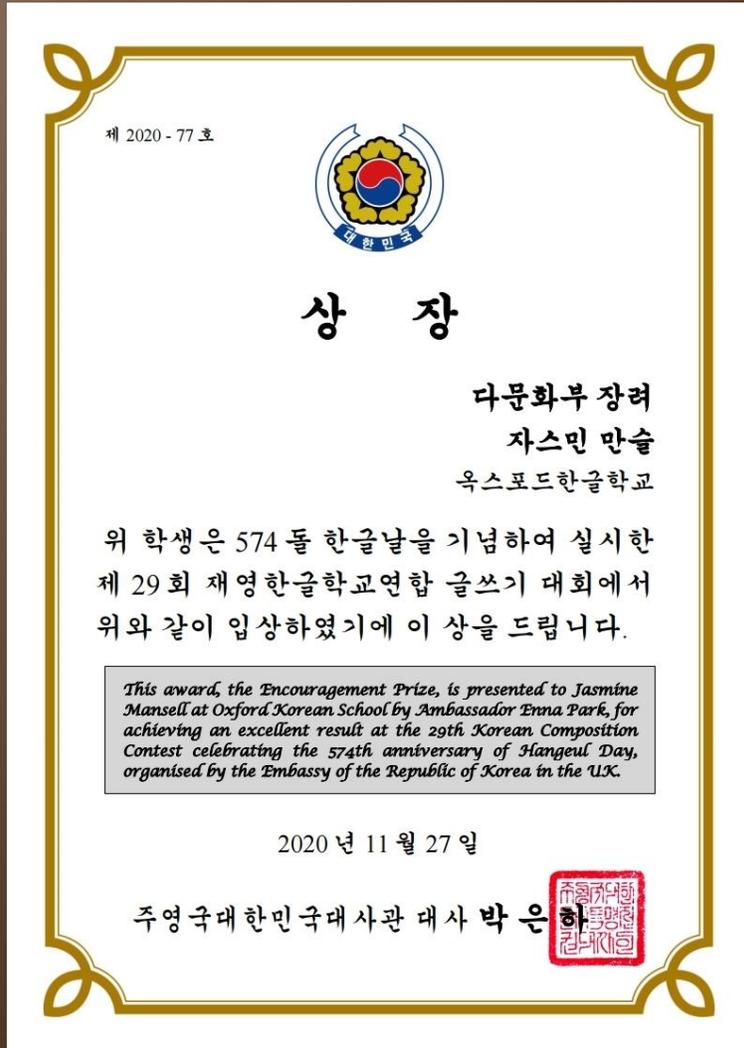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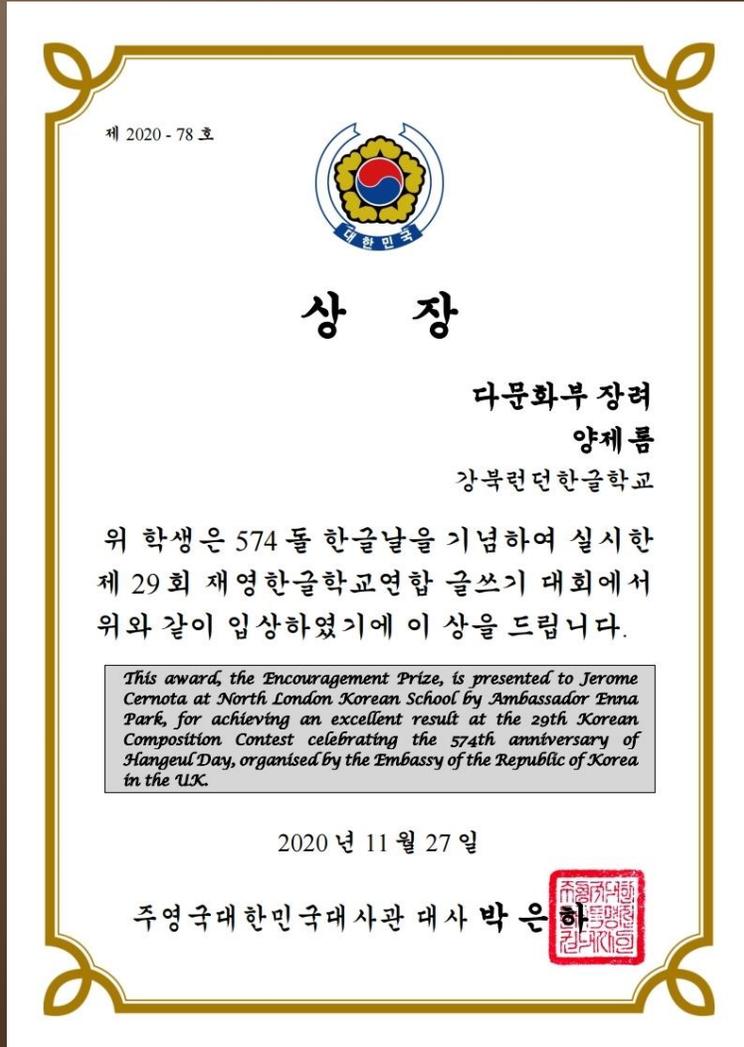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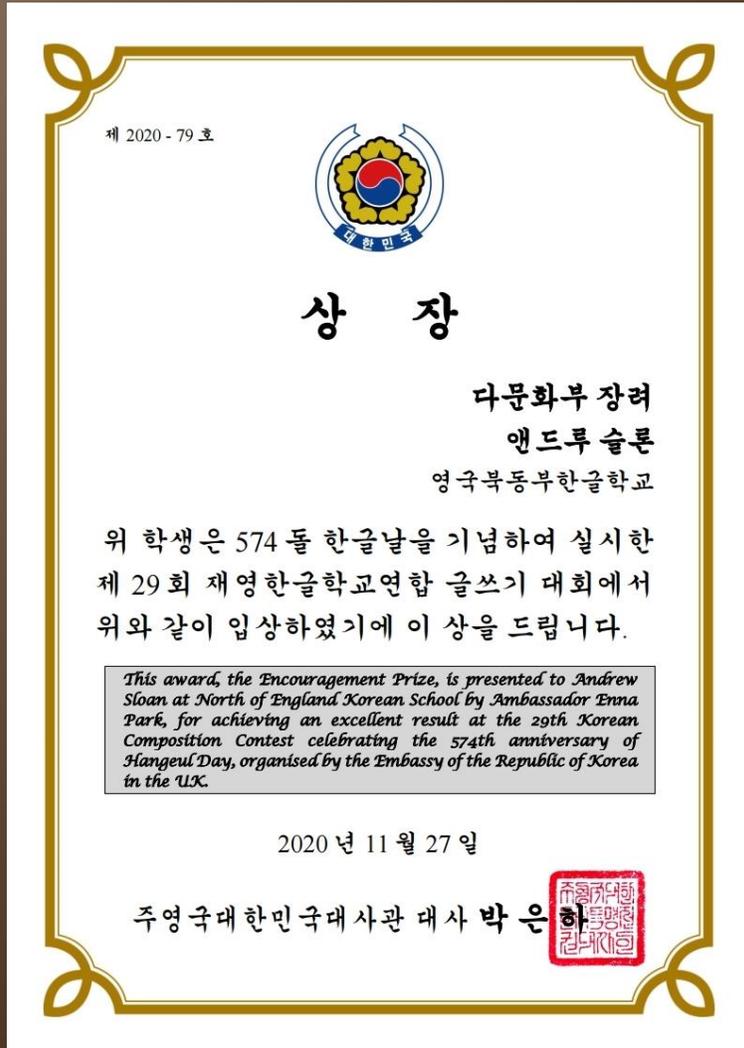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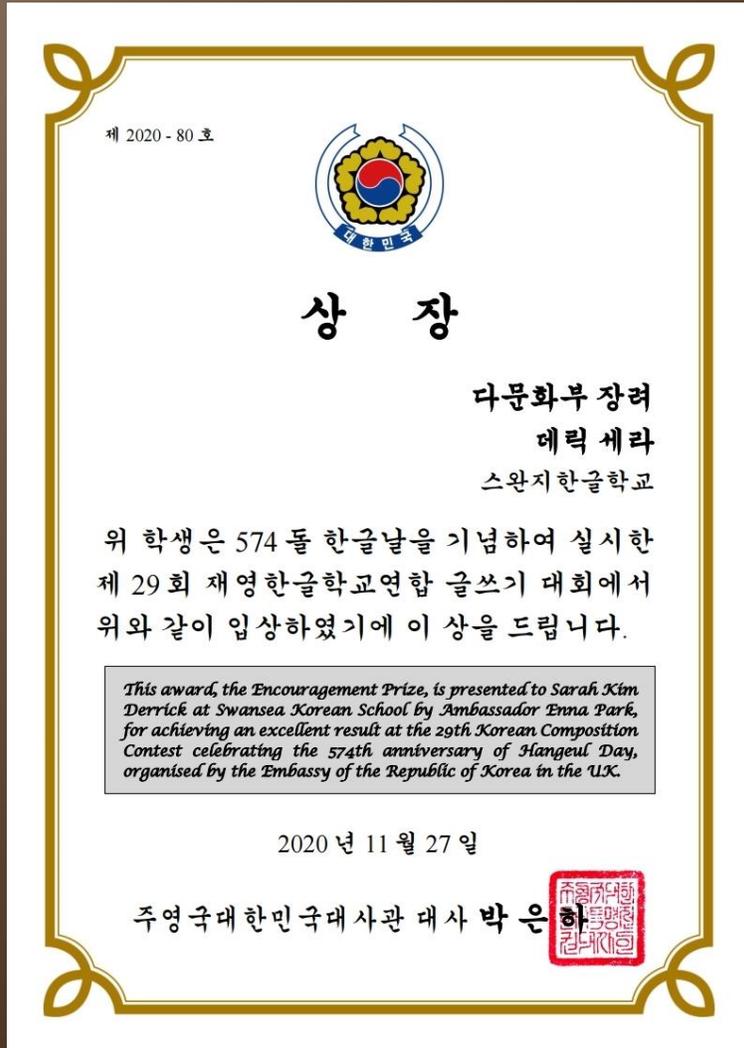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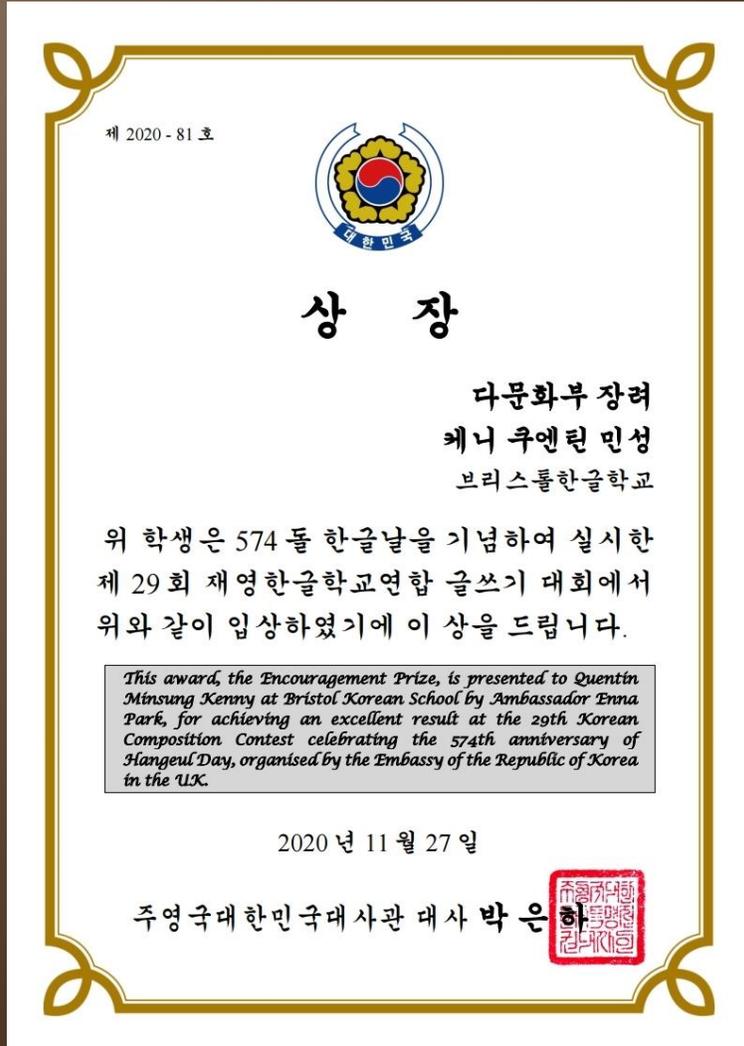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상식 장려상



박은하 대사



2020

제29회 재영한글학교연합 글쓰기대회

시 상 식

2020.11.27



주영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K



주영한국교육원
KOREAN EDUCATION CENTRE UK